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http://www.suna.or.kr

제 25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9년 8월 15일

[1]



모교 출입기자 屠景業·全炳根·崔大植·安俊炫·李憲鎭·成在鎬·安昶賢·禹相旭·徐漢基·金仁圭 동문(Z字방향으로) 커버스토리 6~7면

正論直筆로 바른 세상 만든다



최근 정부에서 「BK 21」(21세기 한국두뇌 육성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우리 모교에 대한 일반 국민의식에 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

이 정책에 관해서는 모교 李基俊총장이 이미 기본방침을 밝히고 있다. 일부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의 문제점 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7년간에 약 1조4천억원을 투입해 모교를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전후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른바 형평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비단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대학의 개혁·확충·지원 등의 문제만 나오면 으레 「서울대」에만 편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식의 일부 시류에 관하여 보다 땃땃이 대응했으면 하는 것

이다. 특별히 짜임새있는 학문적인 해명을 부칠 필요도 없다. 서울대가 어찌 한 집안의, 한 고을의, 한 정파만의 대학이던가! 구차한 실례를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다른 대학의 총장이 서울대 출신일 수 있고, 또 요즘에는 서울대 대학원 출신이 다른 대학 학부의 졸업자이기도 하다.

웬 눈치만 보는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서울대 하나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배 아파할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 없다. 더구나 교육재정의 제약상 우선순위를 가려 투자한다고 했을 때 먼저 서울대부터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키우고 보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가자미 눈처럼 웬 눈치들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될까봐 그런가? 대통령이 모교 출신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교육부장관이 우리 대학 졸업생이었을 때도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것 같다. 심지어 그 두 자리를 맡은 분이 모교 출신이 아니라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으니 말이다.

속된 말로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한 마리도 못잡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모든 한국의 대학을 한꺼번에 세계적인 대학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바에야 서울대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해간다는 것은 「깍아 내리기식 도토리 키재기」에서 「끌어올리기식 줄세우기」의 큰역사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모교 출입기자 간담회도 가졌다. 더 좀 땃땃이, 땃땃이 국민에게 이 사실을 홍보하자. 그리고 먼저 우리 동문부터 역사적인 신념을 가져야 한다. (根)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선진국과 우리간에 차이가 있다.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미국 등에서는 관계회사나 기관안에서 가장 유능한 전문인 또는 담당자를 즉각 대변인으로 내세워 사고의 경위와 진상, 대책 등을 기자들에게 즉각 그리고 소상하게 브리핑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병세의 진행 및 치료상황을 실시간 각으로 알려준다. 대기업의 공장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도 즉각 대변인이 나서서 사고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측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에 바쁘고 심지어 의사, 간호사, 수위에게까지 합구령을 내리기가 보통이다. 공장에서 대형사고가 터지면 으레 기자들의 접근을 봉쇄한다. 기자가 정문 경비실에서 우락부락한 사람들에게 떡살이 잡히고 카메라와 필름을 뺏기고 얻어터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차제에 사고발생의 불가피성과 재발 방지책의 강구, 또한 자기 회사에 대한 홍보를 동시에 진행한다. 반면에 우리는 국민에게 아예 알리려 하지도 않고, 혹시 내용이 일부 새어 나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사건보도를 축소할 것인지에 신경을 더 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치적인 사건이나 치안상의 문제가 터졌을 경우 얼마나 많은 축소보도를



李炯均 한국PR협회 고문

피하고 조작을 일삼았는지 다 아는 일이다. 결국 그로 인해 나중에는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비화하여 많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고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도 우리에게 흔했던 일이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라든가 시국사건, 심지어 옷 로비사건, 공직자 집 절도 침입사건 등의 경우 아무리 진상을 브리핑해도 뭔가 의혹이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도 바로 사건과 사고를 브리핑하는 제도의 후진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대변인에게 그야말로 권한 책임을 부여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에게 어떤 의혹이나 찜찜한 기분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대변인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다만 자고 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만 하는 우

리의 정당 대변인제도는 아예 없애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 건강에도 유익할 것이다. 정당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 상임위원장 등 당 간부들이 논평하고 브리핑하면 된다. 선진국에서 정당대변인을 따로 두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본보 논설위원)

대변인 제도를 활용하자

재외동포에 대한 민족교육 시급하다

동 문 칼럼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으로 향하는 역사의 길목에 서서 우리가 나눠야 할 화두는 민족의 이상과 꿈이 서린 조국의 미래상이다.

앞으로 민족의 청사진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분야별로 이뤄지겠지만 우리 민족의 역량 결집과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한민족의 피를 나눈 재외동포가 미국과 중국에 각각 2백만, 일본 70만, 독립국가연합 45만, 캐나다 11만 등 5백50만명에 이르고 있고,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으로 시작된 이민사도 이제 1백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 해외동포사회가 이뤄낸 양적·질적 성숙도로 보나, 그 시간적 흐름을 보나 재외동포는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해외 민족 자산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세계 5백50만 재외동포를 민족자산으로 지키고 가꿔 민족번영의 수레를 이끄는 동력으로 삼기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할 때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재외동포들에게 뿌리의식을 심어주는 민족교육이 즐거이 이뤄져야 한다. 재외동포 민족교육이야말로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이며 그 출발점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젊은이들의 정체성 위기도 따지고 보면 체계적인 민족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문화관습을 몸에 익히며 그 사회에 동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문제는 거주국의 문화환경에 매몰돼 「우리 말」과 「우리의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곧 조국이 없는 정신적 국적상실에 다름 아니다.

지나친 기우일지는 모르나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그들에게서 한민족이라는 민족 동질성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의 재외

동포사 또한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민족교육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대민족이 전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의 정통성과 그들의 문화를 면면이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조직적인 민족교육의 힘이였다.

「울판」이라는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원하는 모든 재외 유대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조국에서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인원만도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많은 재외동포가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민족교육을 위한 전문 연수기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동포가 살고 있는 나라마다 자생적으로 생긴 한글학교가 전세계에 1천6백개가 있고 정규 한국학교도 20여개가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 자원봉사나 다름없는 1만여명의 교사들이 자라나는 세대의 민족교육에 정열을 쏟고 있다.

또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도 한국어 계절강좌를 개설하여 조국을 찾는 재외동포 젊은이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글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민족교육의 전부라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민족교육을 전담하는 연수기관을 두어 조국을 찾은 모든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적은 부담으로 언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부차원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와함께 민족교육의 요람으로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재외한글학교에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기자재의 보급, 교사양성 등 실질적 지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金奉奎
(61년 行大院卒)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서울大學校總同窓會 獎學펀드 特選 案內 (Intellectual Capital)

주식과 부동산 투자만이 투자는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人才를 위한 투자, 바로 서울대총동창회 장학펀드입니다.

나누는 기쁨·키우는 보람, 서울大人의 금지와 자부심입니다.

특지장학회펀드(출연순)

1구좌 : 5천만원

펀드명	출연구좌	지급현황	운용잔고
홍성대 특지장학회	6	학교법인 상산학원 출신 신입생 및 재학생 27명에게 장학금 지급	340,379,571원
이길여 특지장학회	2	학교법인 가천학원 출신 신입생 및 재학생 16명에게 장학금 지급	115,455,478원
아남(김주진) 특지장학회	10	아남그룹 임직원 자녀중 재학생 17명에게 장학금 지급	605,020,688원
김찬숙 특지장학회	2	치대 재학생 7명에게 장학금 및 치대 교수 1명에게 연구비 지급	113,995,709원
장세일 특지장학회	1	(주)일성 임직원 자녀중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	50,247,550원
박주탁 특지장학회	1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	51,948,714원
양은숙 특지장학회	1	간호대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예정	51,923,293원
정팔도 특지장학회	1	공대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예정	50,000,000원
이금옥·황해근 특지장학회	1	법대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예정	50,000,000원

기금장학회펀드(출연순)

펀드명	출연금	지급현황	운용잔고
전용성 기금장학회	1천만원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 지급	5,078,928원
齒佛會 기금장학회	2천5백만원	치대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예정	25,000,000원
이세진 기금장학회	1천만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예정	10,000,000원

특지 및 기금장학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702-2233)로 연락주시면 안내 브로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투자자문 宋龍相고문

아들·여동생·며느리 6명이 서울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기술종합금융을 거쳐 한국산업투자자문의 고문으로서 우리나라 금융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宋龍相(60년 商大卒)동문.

전주가 고향인 宋동문은 1남 3녀와 외동아들이자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자랐다. 그러나 고교시절 허약한 몸매 위장병까지 앓아 거의 등교를 못하고 혼자서 공부해야만 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만 겨우 학교에 나가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그래도 성적은 좋아 전교 50위 안에 들어야만 갈 수 있다는 모교의 입학원서를 받아 법대를 희망했지만 허약한 몸을 걱정하는 부모님과 외숙부의 만류로 시험 한달 전에 상대로 진로를 바꾸었다.

외숙부 권유로 商大 지원

『당시 전북대 회계학 교수로 계시던 외숙부께서 말씀하시길 법대는 정해진 길로 가는 것뿐이며 오히려 상대가 앞으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산업은행에 입사한 宋동문은 국내 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동경 등에서 근무하며 국제적 금융 감각을 익혔으며, 한국종합기술금융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뛰어난 경영감각을 발휘하기도 했다.

허약한 오편 때문에 부모님이 아들이

기를 학수고대했다는 여동생 宋明見(67년 農大卒)동문은 이러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다고 한다.

원래 성격은 굉장히 여성스럽지만 웅변대회에 나가 상을 탈 정도로 적극적이고 활달한 면을 보여 부모님과 宋동문에겐 큰 자랑이었다고 한다. 현재 동덕여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吳弘根국정정보처장과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부친의 근무지를 따라 싱가포르, 일본 등지로 떠나야했던 宋동문의 자녀들은 그래서 세계 지향적이며 진취적으로 성장한 편이라고. 특히 장남 宋炫宗(87년 社會大卒)동문은 宋동문의 대를 이어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MIT에 입학, 최근 MBA과정을 마치고 영국의 유명한 컨설팅회사인 부츠알랜사에서 새롭게 일하고 있다.

차남 宋炫雄(89년 法大卒)동문도 비록 같은 경제학은 아니지만 자본·금융시장분야가 전문인 국제변호사이기에 삼부자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경제관련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고.

특별하게 공부하라고 잔소리 한 적은 없지만 퇴근 후 宋동문이 먼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

宋동문은 특히 동문 선후배로 연결된 며느리 자랑에 끝이 없다. 맏며느리인 廉丁三(87년 人文大卒)동문은 장남과 학교 커플로 만나 결혼했고, 둘째 며느리인 金廷娥(91년 人文大卒)동문과 넷째 며느리인 韓嬌娥(96년 家政大卒)동문도 연애 결혼을 했다고 하니 부모인

宋동문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장남 대이어 경제학 전공

결혼으로 인해 법적으로 맺어진 동서관계가 선후배 사이다 보니 친자매 이상으로 우애도 좋고 집안도 더욱 화목해진 것 같다고 宋동문은 말한다. 자녀들이 영국, 미국, 호주로 각각 나가 공부하며 일하고 있어 자주 볼 수 없다는 宋동문은 『아이들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원칙을 갖고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며,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사고의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고. (美)



둘째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宋炫宗·廉丁三·金廷娥·宋炫雄동문, 두명건너 宋龍相·韓嬌娥동문, 좌측 원사진은 宋明見동문.



롯데중앙연구소

정예 멤버 11명 뚝뚝 뭉쳐

밤새워 선배 인생강의 듣기도

롯데중앙연구소가 생긴 것은 1983년으로, 당시 롯데제과(주) 영등포공장내 종합 식품연구소로 첫 출발을 시작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1990년 현재 사옥으로 옮기게 되었다.

제과, 아이스크림, 음료, 발효유, 육가공, 냉동식품, 유지, 주방제품 및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실

과 기초원료개발, 포장재개발, 생물공학연구 및 분석분야 등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실로 구성되어 있는 롯데중앙연구소는 특히 이화학적 분석 및 미생물 분석 부문에서 1998년 국가공인기관(KOLAS)으로 인정받는 등 종합 식품연구소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이곳에서는 1백50여명 정도의 연구원이



좌로부터 金世哲·朴炯煥·金等陽·金東永·朴炯一·金鍾洙·金容仁·姜鎬鎭동문

글 : 金等陽(87년 農大卒)간사

근무하고 있으며, 총 11명의 동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다.

연구소내 초기 동문모임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중 본사의 중역입장에서, 동문모임에 대해 파벌의식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기 때문에 부장이하의 직책을 가진 동문들만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초기모임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선배와 후배간의 끈끈한 정과 상호신뢰속에서 열렸으며, 모임이 있는 날이면 밤새는 줄 모르고 토론하고 고충을 함께 나누며, 캠퍼스 생활로 돌아간 듯한 착각속에서 사회생활의 빠듯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분을 나누었다.

지부모임은 주로 신입동문이 들어오는 2월과 3월에 신고식(?)과 함께 새해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나눈다. 또한 6월~8월 사이에 정기모임을 갖고, 연말에는 송년회 겸 가족동반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IMF로 인해 롯데중앙연구소지부 모임에도 한파가 닥쳐오게 되어 동문모임도 다소 축소돼왔다. 기회가 되면 다시 가족동반 모임으로 돌아가려고 회장단 이하 모든 동문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초기 롯데중앙연구소지부는 金憲植(76년 農大卒)동문을 중심으로 金永周(75년 農大卒), 李聖燮(75년 農大卒)동문 등이 수고하고 애써 모임의 기초를 닦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배님들의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며 따뜻한 커피와 향긋한 허브 차의 은은한 향기를 음미하면서 선배님들의 인생철학과 지나온 삶에 대한 명강의(?)를 듣느라고 새벽을 넘기기 일쑤다.

현재 金憲植, 金永周동문은 개인 사업상 연구소를 떠났고, 李聖燮동문은 2년 전 암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하는 아픔이 있었다.

현재는 朴炯煥(84년 農大卒)동문이 회장으로 지부를 이끌고 있으며, 金鍾洙(86년 農大卒), 鄭憲卿(87년 家政大卒), 金均煥(89년 自然大卒), 金東永(90년 農大卒), 朴炯一(90년 農大卒), 金世哲(93년 農大卒), 金容仁(93년 農大卒), 金榮浩(96년 農大卒), 姜鎬鎭(97년 農大卒)동문 등 총 11명의 회원이 자기 위치를 지키며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학술세미나 주관 및 심포지엄 참석에 적극적으로 동참, 새로운 기술소재 개발과 연구동향을 익히고 특허출원 등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경제사정과 국내 상황이 연구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대인 특유의 신념과 자기혁신을 통해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리라 생각된다. 롯데중앙연구소지부 회원들은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오늘도 한발 한발 걷고 있다.

건강을 지킵시다

근심·걱정·슬픔이
「비염」 유발한다

일생을 살면서 감기 한번 안 걸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염의 시작은 대부분 감기이다. 비염이란 비강내에 국한된 점막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주위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부비동염(일명 축농증)이라 한다.

발병 시기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고, 감염성, 비감염성, 알레르기성, 혈관 운동성, 약물 중독성, 위축성 및 건성 등으로 분류된다.

급성 비염이란 감기의 일종으로 환절기에 많으며, 대부분 rhinovirus에 의하며, 기온과 습도의 급격한 변화, 피로 등의 요인이 겹쳐서 잘 생기게 된다.

만성 비염은 단순성과 비후성으로 구분되는데 지속적인 코막힘이 주 증상이다. 그 원인으로는 먼지나 담배 연기 등 지속적 자극, 반복된 급성 비염의 결과로 생기게 된다. 또한 비중격의 구조적 이상이나 편도와 아데노이드 염증, 영양장애, 갑상선 기능 이상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발작전 재재기, 물처럼 흐르는 콧물, 코막힘이 주 증상으로 유전적인 경향이 높으며, 그 원인이 되는 항원으로는 약 80%가 집먼지나 집먼지 진드기이다.

혈관 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나 결막에 대한 염증은 동반하지 않으며, 대부분 성인에게 나타나고 기타 알레르기 검사에서 대부분 음성이다. 고혈압 약물이나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 약물, 국소 혈관 수축제 등으로 악화되기 쉽고 찬공기, 자극적 연기, 습도와 온도



鄭 琬 緯(81년 醫大卒)
정윤재이비인후과의원장

등의 급격한 변화 또는 임신이나 피임제 복용 등으로 혈관 운동성 비염이 야기될 수 있다. 드물게 걱정, 근심, 슬픔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 몸에 첫 번째 관문인 코는 갈수록 악화되는 도시의 대기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코의 건강을 위해서는 코로 숨쉬는 습관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호흡이 곤란한 경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여 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는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가족은 원인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절한 운동과 균형잡힌 식생활 또한 비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수증기 흡입을 자주하는 것이 비염 초기에 큰 도움이 되며 요즘 aromatherapy(향기치료법)에 쓰이는 몇가지 essential oil들을 이용하여 증기 흡입하는 것도 호흡기 건강에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정윤재이비인후과의원 : 408-9617)

추억의
窓

재학시 을지로로 캠퍼스 이전
가장무도회 추억 아직도 생생

韓相宇(62년 音大卒)음악평론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격지심이다. 그런데 이 자격지심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어느 대학을 모교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대 출신은 그런 점에서 평생 든든한 울타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어떤 친구는 모교가 해준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하지만 서울대가 우리의 모교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있는 셈이며, 특히 자격지심 없이 언제나 당당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스트레스를 주는 엄청난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준 것이라 하겠다.

서울대병원 뒤 함춘원 옆의 음악대학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한 나는 3학년때 을지로 6가에 위치해 있는 약학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졸업했다.

함춘원 시절은 주변 풍광이 아름답고 또 서울대 캠퍼스안에 있어 타대학과의 교류도 가능했지만, 동대문 시장안에 있던 약학대학은 주변 환경도 좋지 않고 학교 안도 우중충해 처음엔 정을 붙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단독 캠퍼스로, 둘레가 담으로 둘러싸인 학교는 나름대로의 이점도

있어 한가족과도 같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 잔디밭 이곳 저곳에 둘러앉아 토론도 하고 담소도 나누며 인간적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어느 해 가을에는 학교안에서 가장무도회를 가져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고 교수님들과 술자리를 마련, 허물없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지금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 음악계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다 이미 고인이 되신 교수님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초대학장 玄濟明박사를 비롯해서 金學相, 李想春, 金世炯, 鄭勳謨, 李觀玉, 金興敎선생님들의 열정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음악교육 이전에 인간교육을 우리에게 남기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서울대 출신은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사람이 서로 부딪치며 사는 재미를 학교에서 터득했고 졸업을 앞둔 1961년 가을, 작곡전공 남학생들이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찍은 이 사진도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필자.

李金玉·黃海根동문

「특지장학금」 5천만원 출연

지난 7월 15일 黃海根(60년 工大卒)동일기술공사 회장(사진)이 부인 故 李金玉여사의 유지에 따라 공동명의로 특지장학금 5천만원을 출연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 하여 黃동문이 특별히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에게 黃동



문 부부의 명의로 99년 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캐나다 애드먼튼지부

초대 회장에 李丙斌동문 추대

캐나다 애드먼튼지역에서 활동하던 동문들이 지난 6월 3일 「한국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단 단장으로 애드먼튼을 방문, 동창회 지부를 결성한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에 李丙斌(55년 商大卒)동문(사진)을 선



출하고 총무에 朴淵洪(77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미술작품

金 益 成 作

〈작가 약력〉

- △85년 모교 미대 조소과 졸업
- △91년 모교 대학원 졸업
- △90~98년 서울조각회전
- △92~99년 낙우조각회전
- △95년 제1회 중앙비엔날레 특선
- 서울 현대조각공모전 특선
- △96년 국제미술제 특별전 초대
- △99년 파나노 국제심포지엄 초대
- △현재 상명대, 경북대 강사



「얼굴-새기기II」 85×85cm, Terra-cotta, 1998.

SNU PHIL

9월 19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89년 제1회 연주회를 시작한 서울대 동문교향악단이 올해로 제5회 연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대 음대 국악과 창설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동문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이어 국악과 동문들의 특별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양악과 국악의 멋진 만남이 펼쳐질 이번 연주회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화음과 함께 동문이 하나되는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상곡

- △에네스코의 루마니아 광시곡 제1번 작품11
-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47
- △프랑크의 교향곡 d단조

▲지휘 : 박은성

▲악장 : 김 미



주 최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주 관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동창회

연주회 예약 및 문의 : 서울대학교 음대동창회 TEL (02)701-1441

회원권 : 10,000원 균일(대학생 포함 학생 50% 할인)

예매처 : 티켓파크 지정예매처 538-3200 www.ticketpark.com 천리안Go ticketpark, 교보문고 736-1444, 영풍문고 399-5616, 을지서적 774-2209, 씨티문고 539-6868, 한가람문고 535-1600

주요목차

서울대 가족3면
宋龍相 한국산업투자자문 고문
추억의 창4면
韓相宇 음악평론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6면
모교 출입기자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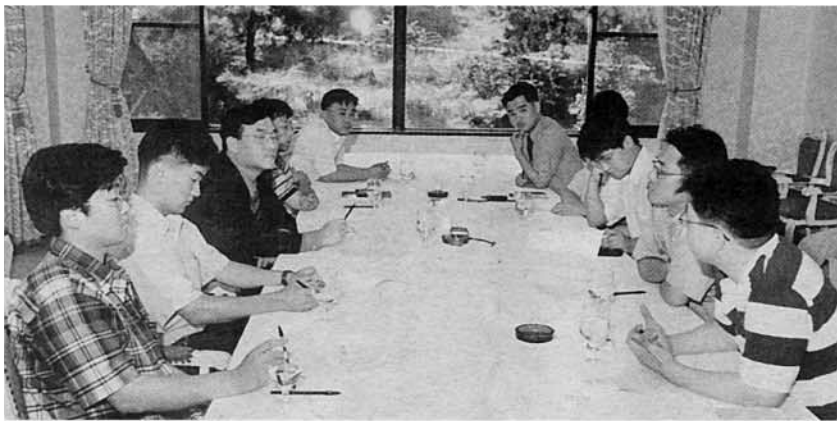
동문을 찾아서11면
申世吉 영화진흥위 초대 위원장
宋柱燾 모교 생활복지조합 판매관리팀장
화제의 동문15면
俞明哲 경희의료원 교수
기업탐방15면
(주)웹콜 시너지

모교 출입기자 간담회

「언론의 자유」 지키려고 펜을 든 서울대인

영국의 자유사상가 밀턴은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난과 질곡의 현대사를 거친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독재자들이 이러한 진리를 죽이는 일에 서슴치 않았으며, 이에 맞서 당당하고 굳세게 우리 언론의 자유를 지켜낸 수많은 서울대인이 있다. 사회의 어둡고 부패한 곳을 찾아 정의를 실천하고자 희생했던 언론인들, 특히 모교 출신 기자들에게 올바른 양심의 소리를 기대해본다. 이에 本報에서는 관악경찰서와 모교에 출입하는 조선일보 全炳根기자를 비롯한 동문 기자 9명을 통해 모교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다양한 문제점 등을 들어보았다.

사회 : 金仁圭(73년 文理大卒) KBS 정책기획국장·본보 논설위원



〈참 석 자〉

- 조선일보 全炳根(92년 法大卒)기자
- 한겨레 安昶賢(94년 人文大卒)기자
- 연합뉴스 徐漢基(94년 人文大卒)기자
- Y T N 崔大植(94년 社會大卒)기자
- 동아일보 李憲鎭(96년 人文大卒)기자
- 한국일보 安俊炫(96년 社會大卒)기자
- K B S 成在鎬(96년 社會大卒)기자
- S B S 禹相旭(96년 經營大卒)기자
- 문화일보 盧景業(97년 人文大卒)기자

사 회 : 기자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명예로울지는 모르나 그 정신적·육체적 고됨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 생활을 희생해야 함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하고, 「바른 소리를 전하는 양심」이라는 긍지와 보람으로 이 일을 선택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직업 가운데 기자직을 선택하게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全炳根 : 재학시절부터 나름대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세상과 직접 부딪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자만큼 적합한 직업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기자생활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도 듣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安俊炫 : 신문학을 전공한 저에게 있어서 사회에서 보람을 갖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기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安昶賢 : 기자직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이 사회

에 맑은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이에 따르는 보람을 둘 수 있습니다. 1년여의 기자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저의 생각에 많이 호응되는 부분도 있고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成在鎬 : 재학시절 가지고 있던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관심들을 사회에 진출해서도 연관시켜 계속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보니 기자라는 직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盧景業 : 어떤 책에서 「젊었을 때는 기자를 해보라」는 글을 읽고 기자직을 선택했습니다.

徐漢基 : 자기 실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사회의 비리를 밝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李憲鎭

禹相旭 :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직업보다도 이 사회에 큰든 작은 영향을 발휘하고 조금이나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崔大植 : 사건과 세상이 돌아가는 중심에 서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자직을 선택한 가장 중

요한 이유입니다.

李憲鎭 : 재학시절 국사학을 전공했지만 과거의 역사보다는 현재의 역사현장에 서있고 싶다는 생각에 기자직을 택했습니다.

사 회 : 서울대를 다녔을 때와 서울대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엘리트 의식을 가졌던 재학생 시절과 언론인으로서 일반인들의 서울대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



徐漢基

학에서는 공부와 연구쪽으로 기여하는 것을 강조한 반면 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 나름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상충하는 면이 있지만 주인의식이 강했다라고 생각하면 일



全炳根

맥 상통하는 부분이며, 지금 사회에 진출해 기자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주인의식은 많이 희박해진 반면 개인적으로 서울대라는 이름에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서울대가 급변하



金仁圭

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安昶賢 : 사회인이 되어 기자로서 타 대학에 출입하면서 서울대가 한국에 있는 여러 대학 중 하나라는 객관적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 때는 교수님이라면 범접하기 어려운 존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학문 연구자로서 타 대학 교수들과도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대는

서울대라는 이름에 자부심 가져 학내 사건을 과장되게 봐선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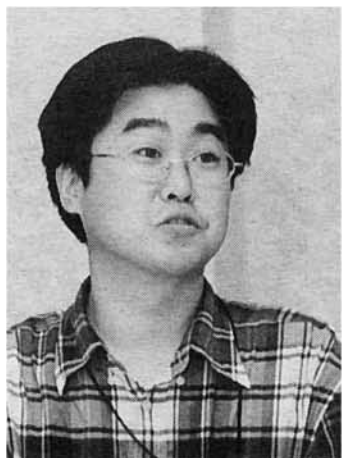
정적 시각을 접했을 때 느낌의 차이가 있다면.

全炳根 : 학교다닐 때를 돌이켜 보면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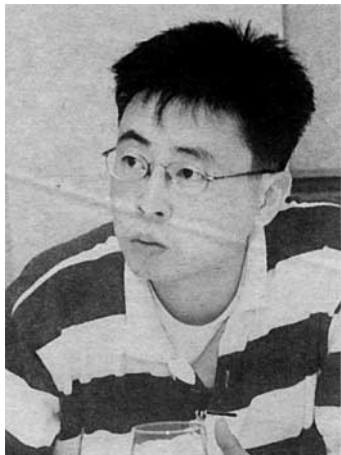
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안으로 안주하려다보니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전에 갖고 있던 긍정적인 주인의식 및 책임의식과 더불어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있는 민첩함을

이제 한국의 유일한 대학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키워 국내 타 대학은 물론 세계의 대학들과 겨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 최근 정부에서는 세



安俊炫



安 昶賢

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한 「두뇌 한국21(Brain Korea 21)」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모교 李基俊총장도 지난 7월 13일 모일간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측의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재능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7년간 매년 2천억원씩 1조4천억원을 투입해 경쟁력 있는 대학과 분야를 적극 지원·육성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문의 붕괴와 지역 우수대학과 세계적 대학원의 서열화가 더욱 급격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공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으로 짜여진 BK21에 대해 인문·사회계열의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대 출입기자로서 BK21에 대한 견해와 모교의 수용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安俊炫: BK21의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트 스포츠육성 정책과 같은 형태로 저변은 없이 몇몇 소수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무조건 금메달을 따오게 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이 은퇴를 하거나 그만두면 그동안에 소비했던 시간과 기술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초학문이 발전해야 더불어 응용학문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BK21은 우리 사회의 일등주의, 최고주의 문화가 반영된 의식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기되어 아무말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각 분야의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이러한 불만 등은 서로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K21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정책으로 실천하고 추진하는데는 합의와 더 많은 대



崔大植

화가 필요합니다.

安昶賢: BK21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추진과정이 너무 난폭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발전을 위해 집중투자를 한다는 大義 자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소외집단을 만들고, 그 소외집단으로부터 예상되는 반발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아쉽습니다.

추진과정에서도 마치 ZERO SUM게임 같은 인상을 준 것은 잘못된 점이라 생각하며, 전체 학문의 발전을 위한 BK21이 마치 서울대 발전을 위한 것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학문을 발전시키겠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지원방식의 틀을 새롭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울대와 사립대 및 지방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가능해질 것이고 다른 쪽에서 지지·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느낀 것이지만 모든 부분들이 서울대와 비서울대로 나뉘어 생각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편가르기는 그동안 모교의 홍보

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교육개발을 계기로 국내 대학들은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서로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우수대학과 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며, 모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 모교가 홍보의 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교 동문이자 출입기자로서 서울대 홍보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徐漢基: 사회적 현안과 정치적 사건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기자로서 서울대인들을 만나보면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하며, 지식인으로서 올바른 자세



禹相旭

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李憲鎭: 대학이 홍보를 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울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연구 중에는 사회적 의미 여부를 떠나서 死藏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가적인 의미는 물론 그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외부에 알려 국립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교의 분위기는 기자들이 직접 물어보아야만 마지못해 이야기해주고, 그 연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아 전문 분야의 지식이 없는 기자들로서는 자신이 아는 범위 안

공식적 입장이나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없는데 이해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全炳根: 앞서 이야기가 됐지만 서울대가 갖고 있는 권위의식 또는 최고의식때문에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기자들이 찾아와 취재를 하겠지 하는 분위기가 학교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의 봉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成在鎬: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서울대가 좀더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서울대가 좋은 취재대상이 되는 것은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취재경쟁으로 인한 오보가 많은 것도 사실이며, 기사자체가 의도적으로 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정책 발표 등에 대해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통로가 없다는 것이 기자들로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 회: 지난 5월 발생한 모교 자하연 연못의 재학생 익사 사건이나 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한 서울대 난입 및 경찰 진



成在鎬

압 등에 대해 선포로서 또한 가까이서 지켜본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李憲鎭: 지하철 노조원들의 서울대 난입과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개인의 출세나 立身揚名에만 치중하고 있어 대학에서 사회적 책임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익사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두달전에 벌어졌지만 1단 기사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데 장소가 서울대이기 때문에 서울대의 대학문화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 선부른 생각이라 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서울대를 너무 과잉포장해서 보는 잘못된 시각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安昶賢: 전적으로李기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서울대이기 때

문에 신기해하는 이러한 시각은 오히려 외부에서 서울대라는 선민의식을 조장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후진적 문화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과연 지성인이란 무엇이며, 그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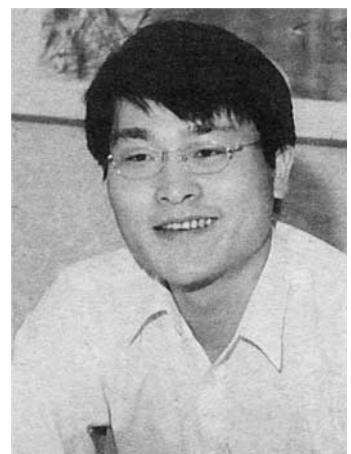
崔大植: 관악캠퍼스내에서 조국의 개혁과 변혁의 중심에 서있는 서울대인은 전체 재학생중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마치 자신만이 선택받고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에 빠져 졸업후 비로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 탄력성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成在鎬: 대학문화와 관련해 서울대의 방향은 자꾸 연구중심의 대학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학부생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쪽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 열풍」, 「고시 타운」같은 말들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모교 재학생들이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립대생으로서 남들보다 혜택을 받으며 교육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각자의 장래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대학 측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때 봉사성과 사회성을 갖춘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 회: 끝으로 모교 발전에 힘과 뜻을 보태어야 할 20만 우리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禹相旭: 동문들이 서울대 발전을 위해 공헌하기 위해서는



扈景業

각자 진출해 있는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울대 출신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뿐만아니라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憲鎭: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동문들이 입학 시절이나 사회에 첫발을 디뎠을 때의 初心을 잊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 회: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어 간담회에 참석,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기려는 태도로는 협조 어렵다 立身揚名만 치중하는 것이 문제

扈景業: BK21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방대학이나 인문·사회계열 분야의 불만으로서 BK21에 대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조조정과 더불어 이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교는 국내 제일의 대학이라는 자부심만을 가지고 대학홍보 및 우수학생 모집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며,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모교의 발전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

에서 유추해서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기사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본부에서는 모든 부분을 감추려고만 하고, 자료를 요청해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떤 문제에 대한

동정

수상

▲全鍾暉(35년 京城醫專卒·인제대 명예교수)=지난 7월 14일 롯데호텔에서 성곡학술재단이 수여하는 「성곡학술문화상(자연과학부문)」을 받음.

▲金鍾泌(46년 師大入·국무총리·本會 顧問)=지난 7월 2일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자랑스런 미술인상(공로부문)」을 받음.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 회장)=최근 대한매일신보사가 주최한 「금강산 사진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음.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 총장·本會 副會長)=최근 제7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상(환경운동부문)」을 받음.

▲黃哲益(57년 音大卒·러시아 국립예술대 교수)=최근 출간된 예술동요와 합창곡집 「꽃파는 아가씨」로 「대한민국 동요작곡 대상」을 받았으며, 지난 7월 17일 美 LA

에서 아시아기독인 작곡가 연맹 한국위원의 작품발표회를 개최함.

▲李成茂(60년 文理大卒·한국정신문화원 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학술원이 주관하는 제44회 「학술원상(인문사회과학부문)」수상자에 선정됨.

▲沈相哲(62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학술원이 주관하는 제44회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수상자에 선정됨.

▲文仁炯(64년 文理大卒·한양대 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학술원이 주관하는 제44회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수상자에 선정됨.

▲金潤圭(69년 工大卒·현대건설 사장)=지난 7월 7일 제8회 도로의 날을 맞아 현대건설이 도로교통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음.

▲南京熙(72년 文理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6월 11일 저서 「이성과 정치존재론」으로 제11회 「서우철학상(저술부문)」을 받음.

▲李鎭學(72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25회 미국 백내장 및 굴절학회에서 「포스터 특별상」을 받음.

▲辛鍾午(74년 師大卒·건국대

교수·前한국과학기술자클럽 회장)=지난 7월 2일 한국과학저술인협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과학저술인상(인문부문)」을 받음.

▲李光炯(78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6월 7일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1회 정보문화상 시상식에서 「정보문화진흥상」을 받음.

▲張東光(88년 美大卒·일민미술관 큐레이터)=지난 7월 2일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자랑스런 미술인상(공로부문)」을 받음.

▲俞相玉(39기 AMP·코리아나 화장품 사장)=지난 6월 9일 고려경영포럼이 수여하는 제15회 「고려경영포럼 대상」을 받음.

이동·선임

▲蔣慶煥(57년 工大卒·고려제강 상임고문)=지난 6월 23일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회장에 선임됨.

▲李大淳(57년 法大卒·경원대 총장)=지난 6월 25일 전국 대학교 및 전문대학총학장이 회원인 한국대학사회

봉사협의회 회장에 선출됨.

▲金鍾星(54년 工大卒·서울건축 사장)=지난 5월 7일 미국건축가협회(AIA) 원로회원

에 선임됨. ▲姜信澤(59년 文理大卒·한국행정문제연구소 이사장)=지난 7월 9일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규회원에 선출됨.

▲金璟東(59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사단법인 정보사회학회 초대 이사장에 취임함.

▲金英勳(59년 法大卒·숭실대 대학원장)=최근 한국환경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李升煥(59년 法大卒·前그리스 대사)=지난 7월 13일 소피텔 엠베서더호텔에서 세종라이온스 클럽 회장에 취임함.

▲鄭鎭弘(60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7월 9일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규회원에 선출됨.

▲洪寅基(60년 法大卒·前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지난 6월 4일 명지대 증권보험대학원 객원교수에 선임됨.

▲金榮煥(60년 師大卒·고려대 교수)=지난 7월 20일 고려대 보건대학장에 선임됨.

▲李敦熙(60년 師大卒·모교 교수)=지난 6월 30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李建憲(60년 商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6월 19일 한국경영사학회 정기학술발표회 및 정기학술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임됨.

▲朴寅緒(60년 醫大卒·삼성제일병원장)=최근 대한병원협회 출연으로 설립된 병원경영 전문인간연구기

관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장에 취임함.

▲李澤徽(61년 文理大卒·서울교대 교수)=지난 7월 8일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에 임명됨.

▲尹世榮(61년 法大卒·SBS회장·本會 副會長)=지난 6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원도민회 정기총회에서 제8대 회장에 추대됨.

▲趙南弘(62년 文理大卒·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지난 6월 3일 국제노동기구(ILO)이사에 재선임됨.

▲韓昇洲(62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지난 6월 4일 동아시아비전그룹 한국측 위원에 선임됨.

▲曹時鉉(62년 商大卒·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지난 7월 14일 통일교육원 원장에 선임됨. ▲崔松和(63년 法大卒·前모교 부총장)=지난 6월 25일 한국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공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泰球(63년 商大卒·대우자동차 사장)=지난 7월 8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에 선임됨.

▲申仁植(64년 商大卒·前상원리스 사장)=지난 6월 19일 한국개발리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秉模(65년 文理大卒·한양대 박물관장)=지난 6월 2일 국제박물관협의회(ICOM)한국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위원장에 선출됨.

▲邊炯(65년 文理大卒·한국투자신탁 사장)=지난 7월 1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국투자신탁 사장에 재선임됨.

▲安在杰(65년 文理大卒·국무조정 심사평가조정관실 심사평가2심의관)=지난 6월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원장에 선임됨.

▲李俊一(65년 文理大卒·중앙대 정경대학장)=지난 7월 8일 「언론인 고용지원센터」 집필지원 심사위원장에 선임됨.

▲李正斗(65년 文理大卒·서울지방조달청장)=지난 7월 11일 조달청 차장에 선임됨.

▲李鄉烈(65년 文理大卒·前건설교통부 차관보)=지난 6월 30일 대한주택보증(주)(前주택공제조합)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明載(65년 法大卒·前대검중수부장)=지난 6월 6일 부산고검장에 선임됨.

▲李泰昌(65년 法大卒·前광주지검장)=지난 6월 6일 법무부 연수원장에 선임됨.

▲曹海寧(65년 法大卒·前내무부장관)=지난 6월 15일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에 선임됨.

▲黃龍河(65년 法大卒·前경찰청장)=지난 6월 11일 한국전력 감사에 선임됨.

▲白義鉉(65년 音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7월 6일 서울예술대 제11대 총동문회장에 선임됨.

▲金慶漢(66년 法大卒·前법무부 교정국장)=지난 6월 6일 법무부 차관에 선임됨.

▲權旭鉉(66년 工大卒·모교 교

(9면에 계속)

「정진기 언론문화상」대상 수상

安哲秀·金弘善·李根植동문



安哲秀

지난 7월 12일 매일경제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제17회 「정진기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安哲秀(86년 醫大卒·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장)·金弘善(83년 工大卒·시큐어소프트 사장)동문이 「과학기술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을 저술한 李根植(70년 商大卒·서울시립대 교수)동문이 「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특히 安동문과 金동문이 공동 개발한 인터넷·인트라넷용 바이러스 보안제품인



金弘善

「바이러스 월」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국내 정보보호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朴達泳(76년 工大卒·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장)동문이 국내 천연가스 자동차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운행을 통한 보급환경 조정에 애쓴 공로로 「과학기술부문 장려상」을, 「회사정리제도」를 공동 저술한 崔道成(74년 商大卒·모교 교수)동문이 「경제·경영도서부문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美)



李根植

(8면에 이어)



수)=지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자동차 어 연맹(IFAC)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출됨.

▲金善泰(66년 商大卒·국민리스 수석부사장)=지난 7월 9일 국민리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朱良子(66년 大學院卒·前보건복지부 장관)=지난 7월 2일 사단법인 한·몽골 교류협회 제2대 회장에 선임됨.

▲李益煥(68년 師大卒·연세대학교 교수)=최근 한국인지과학회 회장에 선임됐으며,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 하버드대에서 열린 한국언어학국제학술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음.

▲尹泳祚(68년 商大卒·국민기술금융 수석부사장)=지난 7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기술금융 사장에 선임됨.

▲朴容炫(68년 醫大卒·모교 병원장)=지난 7월 12일 대한병원협회에서 발간하는 의료주간지 「병원신보」의 제4대 편집인에 선임됨.

▲全義進(69년 工大卒·前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지난 6월 10일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실장에 임명됨.

▲金永哲(69년 農大卒·前특허청 차장)=지난 6월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선임됨.

▲金一燮(69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 부회장·冠岳會理事)=최근 한국회계연구원장 겸 회계기준 위원장에 선임됨.

▲李永鐸(69년 商大卒·前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지난 6월 16일 한국종합기술금융 회장에 선임됨.

▲尹震映(70년 農大卒·농촌진흥청 연구협력과장)=지난 7월 1일 중앙종묘(주) 사장에 선임됨.

▲周善會(70년 司大院卒·前대검 감찰부장)=지난 6월 6일 광주검찰장에 선임됨.

▲金成豪(71년 經營大卒·경인지방국세청장)=지난 6월 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선임됨.

▲李熙範(71년 工大卒·무역위원회 상임위원)=지난 6월 11일 산업자원부 차관보에 선임됨.

▲趙誠振(71년 文理大卒·前예술의전당 예술감독)=지난 7월 22일 세종문화회관 공연부장에 선임됨.

▲朴元出(71년 法大卒·前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지난 6월 28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에 선임됨.

▲李大榮(71년 法大卒·김포세관장)=지난 6월 18일 관세청 차장에 임명됨.

▲文東厚(71년 法大卒·행자부 소청심사위원)=지난 6월 5일 대통령 행정비서관에 임명됨.

▲孟廷柱(71년 商大卒·前조달청 차장)=지난 6월 26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에 선임됨.

▲張基賢(71년 醫大卒·모교 교수)=최근 제3차 아시아 대양주 신경두경부 방사선학학회 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임됨.

▲孫相賀(69년 行大院入·駐상하이 총영사)=지난 7월 14일 외교통상부 의전장(1급)에 임명됨.

▲俞重植(72년 法大卒·한화종합화학 상무)=지난 7월 14일 (주)콜롬버스 사장에 선임됨.

▲金鍾述(73년 工大卒·한국가스공사 전무)=지난 7월 20일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에 선임됨.

▲李正植(73년 商大卒·삼보컴퓨터 부회장)=지난 7월 2일 한국개발투자금융 대표이사에 선임됨.

▲李鍾晨(73년 商大卒·前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장)=지난 6월 28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선임됨.

▲朴在甲(73년 醫大卒·모교 교수)=지난 7월 20일 국립암센터 초대 소장에 내정됨.

▲尹濟奐(74년 農大卒·중앙대 홍보과장)=지난 7월 2일 제3대 한국대학홍보협의회 회장에 선임됨.

▲李揆亨(74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지난 7월 14일駐중국 공사에 선임됨.

▲吳聖三(77년 大學院卒·건국대 교수)=지난 7월 10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평가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朴春培(79년 環大院卒·주택사업공제조합 전무)=지난 7월 10일 동광주택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朴在夏(81년 社會大卒·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지난 6월 14일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에 선임됨.

▲張寅煥(81년 師大卒·현대투자신탁 펀드매니저)=지난 7월 20일 KTB투자신탁운용(주) 사장에 내정됨.

▲金周元(82년 法大卒·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지난 6월 30일 대통령 민정수석실 민정1비서관에 선임됨.

▲全珍約(88년 大學院卒·산림청 국제협력과장)=최근 산림청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에 임명됨.

▲李重根(5기 AMP·(주)부영 회장)=지난 7월 6일 제20대 학교법인 건국대 이사장에 선임됨.

▲韓周奐(34기 AMP·前공군참모 총장)=지난 6월 29일 공군사관학교 제7대 총동창회장에 선출됨.

▲李廷洙(2기 AIP·유니슨산업(주) 회장)=지난 6월 25일 연세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총동창회 제14대 회장에 선임됨.

▲崔在旭(36기 ACAD·前환경부장관)=지난 7월 9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열린 경주崔씨 중앙종친회 총회에서 제18대 종친회장에 선출됨.

▲朴正求(38기 ACAD·보건복지부 보건지원관리국장)=지난 6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에 선임됨.

▲李相永(40기 ACAD·前주택은행 감사)=지난 7월 8일 한국주택금융(주) 대표이사에 선임됨.

▲權寧珍(42기 ACAD·前한국가스공사 부사장)=지난 7월 9일 한국가스기술공업 사장에 선임됨.

▲文東明(44기 ACAD·前육군종합행정학교 교장)=지난 6월 14일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에 선

뉴욕한인상공회의소 李典九회장

U.S.O. 공연서 하모니카 연주



지난 7월 3일 용산 미8군에서 열린 U.S.O.(The United Service Organizations) 특별 공연에 재미동창회 李典九(64년 農大卒)前뉴욕지부 동창회장이 참석, 멋진 하모니카 연주를 펼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가족을 위문하고 격려하기 위해 2차대전중 창설된 U.S.O.는 그동안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가 회장을 맡아 활동해오다가 지난해 李典九의 형인 이준구(미국 준리태권도클럽 회장)氏가 대표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1회 한미 태권도인 우호 교류연수 대회를 겸해 열렸다.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택한 李典九 형제는 3일 용산에 이어 4일 오산 미군기지도 함께 방문해 태권도 시범과 다양한 문화행사로 한미간 우호 증진에 힘썼다.

현재 뉴욕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李典九은 앞으로 코소보 방문을 비롯한 U.S.O.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뉴욕지부 동창회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李典九은美동부지역 최대 골프전문 백화점 그룹인 뉴욕골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李典九은 지난해 美동부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문단에 정식으로 등단하기도 했으며, 지난 6월 20일 링컨센터에서 열린 재미동창회 주최 「통일음악회」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하모니카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美)

임됨.

행사·출간

▲趙炳華(43년 京城師範卒·예술원 회장)=지난 6월 3일 캐나다 빅토리아대학에서 시와 예술을 통한 인간성 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음.

▲許 墳(51년 工大卒·APEC기술사 심사등 록위원회 부위원장)=지난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동경에서 열린 APEC기술사전문가 자문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함.

▲姜斗植(51년 文理大卒·호원대 총장)=지난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경제대학을 방문, 양교간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蘇鎮轍(53년 法大卒·원광대 교수)=최근 일본에서 「朝鮮戰爭의 起源—國際共產主義者의 陰謀」를 출간함.

▲盧信永(54년 法大卒·롯데복지재단 이사장)=지난 7월 14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초등학교

결식 아동 1천5백70명에게 생활보조비 1억5천7백만원을 지원함.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보 백상기념관장·法大同窓會 副會長·本報 論說委員)=그동안 미국 스탠포드대학원에 유학중이던 3남 孫勳(92년 工大卒)동문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약 2주간 미국에 다녀왔다.

孫勳동문의 박사학위 논문은 「確率論의理論을 活用한 托物구조물의 안전 진단」이라고 한다. 孫勳동문은 94년 모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앞으로 「로스아라모스」의 美 국립연구소에 「포스트 닥」으로 근무하게 된다.

▲鄭東華(57년 師大卒·의식개혁협의회 회장)=최근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제3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함.

▲趙錫俊(57년 大學院卒·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지난 7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무원 보수, 무엇이 적정 수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짐.

▲李興鍾(58년 師大卒·예일학원지부 간사장)=최근 정년을 맞아 예일여상고 교사직을 퇴임함.

(10면에 계속)

(9면에 이어)

▲曹舜文(60년 文理大卒·한국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지난 7월 14일 대농중공업 등 6개사 30개 제품에 대해 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증하는 「S마크 안전인증서」를 수여함.

▲曹慶鍾(60년 獸醫大卒·대한 에이즈예방협회 부산시 회장)=지난 7월 16일 부산 대강당에서 양호교사, 청소년지도자, 상담원, 보건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예방을 위한 보건요원 교육을 실시함.

▲司空壹(64년 商大卒·세계경제연구소 이사장)=지난 7월 22일 「세계경제가 당면한 도전과 대응책」을 주제로 조찬강연

회를 개최함.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통일안보연구소장·本報 論說委員)=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제주

서귀포호텔에서 「서해 교전 이후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주제로 편집·보도부국장 세미나를 개최함.

▲李光洙(65년 法大卒·前청주지검장)=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8

국제B/D 302호, 전화: 596-5454)

▲林平子(65년 農大卒·농촌생활연구소장)=지난 7월 8일 농

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錢 洸(67년 法大卒·前공무원 관리공단 상무)=지난 7월 7일 명리학 연구원인 동방 명리학 연구원을 개설함.(주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404 풍림오피스텔B/D 315호, 전화: 3272-2758)

▲朴虎君(70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원장)=지난 7월 19일 재단법인 엑스포와 공동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주제영상관」을 제작하기로 연구협력협약을 체결함.

▲姜智遠(72년 文理大卒·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지난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세대 글쓰기 축제를 개최함.

▲朴杉沃(72년 文理大卒·한국지역학회 회장·모교 교수)=지난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

관에서 제16차 태평양지역 지역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李 哲(72년 工大卒·前수원지검 1차장검사)=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3-23 승전B/D 306호, 전화: 0331-213-6633)

▲宋珠煥(72년 法大卒·前서울지법 남부지청 차장검사)=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주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8-6 2층, 전화: 679-7770)

▲李炅在(72년 法大卒·前서울고검 검사)=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B/D 서관 415호, 전화: 536-3330)

▲李柱榮(74년 法大卒·이주영 법률사무소 대표)=지난 7월 11일 늘푸른전당에서 열린 「혼가람 희망21-청소년 자원봉사단」발대식에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함.

▲李珉和(76년 工大卒·메디슨 회장·本會 副會長)=최근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주간지 아시아 위크지가 선정한 「21세기 리더 20인」에 선정됨.

▲李達坤(77년 工大卒·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모교 교수)=지난 7월 13일 「21세기 울산의 산업구조 고도화전략과 문화도시로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방포럼을 개최함.

▲柳一鎬(81년 社會大卒·한국조세연구원장)=지난 7월 22일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한국과 미국」을 주제로 개원 7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姜忠模(83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7월 21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청소년들의 클래식 교육을 위한 해설이 있는 스쿨 클래식을 가짐.

▲趙娟熙(86년 音大卒·경희대



강사·피아니스트)=지난 7월 1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하이든, 브람스, 알베니스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가짐.

▲裴晶寅(90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8월 6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정리=李美連 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박종현 군(94년 工大卒)·김소영 양=8월 22일 13시

* 권학수 군(93년 工大卒)·최은종 양=9월 4일 12시30분

* 남상준 군(97년 社會大卒)·유혜정 양=9월 5일 14시

* 임태우 군(90년 人文大卒)·전세영 양=9월 11일 12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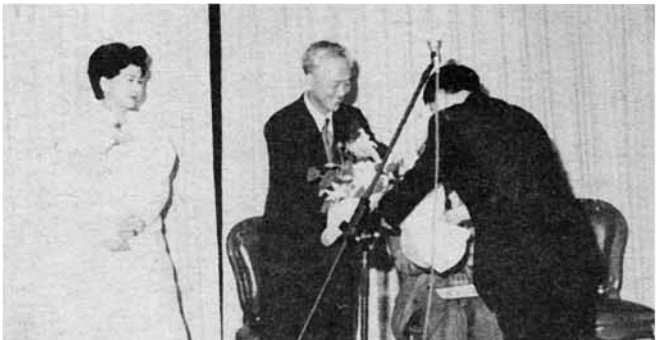
* 안성우 군(95년 工大卒)·송수현 양=9월 11일 14시

* 오명훈 군(96년 工大卒)·조경자 양=9월 11일 15시30분

* 황영환 군(97년 醫大卒)·조정화 양=9월 12일 12시30분

회갑기념 논문 봉정식 가져

모교 朴東奎교수



언어의 압축과 청록과 시인으로 유명한 故 朴木月 시인의 장남인 朴東奎(모교 교수)동문의 회갑기념 논문집 봉정식이 지난 7월 15일 서울대총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열렸다.

61년 모교 문리대를 졸업한 차동문은 1962년 「현대문

학」에 평론 「카오스의 질서화 작용」으로 등단, 「한국현대소설의 비평적 분석」 등 다수의 논문과 수필, 평론 등을 발표하며 한국 문학계의 거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자리에는 金容稷모교 명예교수 등 많은 동문이 참석, 열띤 성황을 이뤘다.<信>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의 예식에 대한 사항은 하안드레스(전화 02-716-2230)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회
申世吉 초대 위원장



모교 생활복지조합
宋柱香 기념품판매 관리팀장

“기업경영 노하우 영화산업에 접목”

최근 영화진흥공사의 업무를 흡수, 민간기구로서 새롭게 발족한 국내 영화·애니메이션 분야의 실질적인 구심점인 영화진흥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申世吉(61년 商大卒)동문을 만나 영화진흥위원회 앞으로의 계획과 소감을 들어보았다.

—선임 소감은.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62년에 삼성에 입사하여 36년동안 제일기획 사장, 삼성물산 사장 등을 거쳐 97년부터 2년간 삼성 구주본사 사장을 지내왔습니다.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영화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수락했습니다.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개인의 욕심이 아닌 영화산업이라는 공익을 위해 활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영화제작 활성화와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영화의 산업적 토대를 닦아 국내 시장을 키우고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화진흥위는 어떤 단체인지요.

『영화진흥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10인의 위원들에 의해 우리 영화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중요 정책들이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됩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간자율기구입니다. 기존의 영화진흥공사는 정부의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집행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율기구에 주어진 「자율」은 「책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 영화산업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영화 지원책은.

『할리우드의 영화 자본과 스타일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을 많이 들인 할리우드와 유사한 영화들이 제작



되고 있지만 그것은 선진 영화제작 방식을 배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단계를 넘어 우리만의 독특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쉬리」나 「용가리」와 같은 블록버스터형 영화가 있는가 하면 「서편제」와 「아름다운 시절」과 같은 작품성과 예술성으로 관객에게 승부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는 우리 영화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진흥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원과 시장경제원리를 적절히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큰 틀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역점사업을 정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 사업들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영화현장과 동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영화진흥위원회가 우리 영화인들의 마음이 모이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 직원들의 능력과 의견을 존중하는 下意上達의 경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모교 캐릭터상품 구경하세요”

최근 모교를 상징화한 넥타이, 손수건, 기념 엽서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초 모교는 텍스타일 전문 회사인 누브티스社와 제휴해 정문과 로고를 상징화한 넥타이를 비롯, 직지심경의 요체를 새긴 손수건 등을 차례로 개발해 기존의 기념품 사업 수준을 한차원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릭터 및 기념품 사업의 판매와 운영을 맡고 있는 생활복지조합의 宋柱香(89년 家政大卒)판매관리팀장을 만나 판매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기념품 사업의 시작은.

『모교에서 기념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전부터이며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매장을 새롭게 단장, 누구나 쉽게 찾아와 직접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개방화시켰으며 외국대학의 자료수집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기념품이 갖는 의미는.

『첫째, 대학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둘째, 수익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소속감과 자긍심의 표현이며, 동문들에게는 모교에 대한 애착과 지나온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서울대를 친근하게 느끼고 사랑하게 하는 표현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생활복지조합 로고 개발과 더불어 서울대 고유 모델로 카드, 그림엽서, 모자, 티셔츠, 북마커, 머그컵, 문구류, 팬잡시 등 대학하면 연상되는 아카데미컬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대 디자인학부 교수와 연계해 20가지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8~9월중에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각 달

마다 하나의 작품으로 보일만큼 특별 디자인된 2천년 기념 캘린더와 재질과 성능에 신경을 쓴 다이어리는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우수한 상품입니다』

—새로운 판매 전략은.

『교내에만 기념품 매장이 있기 때문에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외부에 판매처를 두고 임대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 인터넷을 통한 전자판매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생활복지조합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들의 경우 인터넷 초기 화면이나 두번째 화면정도에서 바로 대학기념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STORE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모교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동문들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물건을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며 현재 서울대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접속하면 기념품을 볼 수 있고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생활복지조합 기념품판매팀 : 880-8017) (美)





우리의 장묘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朴福淳(74년 家政大卒)한국 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

사 랍은 누구나 태어나서 각 자에게 주어진 만큼의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또 그 죽음에 따른 장례의식은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례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래 매장 중심의 장묘 관행이 마치 우리의 고유 전통인 것처럼 이어져 오면서 6백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조상의 분묘를 중시하여 화장을 기피하고 매장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국토의 1%를 묘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묘지 수는 약 2천만기로 추정되고 있다.

묘지가 전국토 1% 차지해

우리 국토 중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은 전국토의 23%에 불과한데 이중 5.2%를 묘지가 뒤덮고 있어 우리나라는 가히 묘지천국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주거공간이 4.3평인데 비해 묘지는 평균 19.35평에 달해 죽은 자의 공간이 산사람의 주거공간보다 4.5배나 더 큰 것이 현실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묘지는 주로 개인묘지로서 전체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묘지는 31%에 불과하며 개인묘지의 70% 이상이 불법묘지이다.

우리사회가 도시화, 핵가족화되면서 조상의 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버려진 분묘가 전체묘지의 40%에 이르러 이로인한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매년 20여만기의 묘지(여의도 면적의 1.2배)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서울시 및 수도권은 3년 이내, 전국은 10년 이내로 집단 묘지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이제 묘지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 유실된 홍물스런 분묘들을 마스크를 통해 보면서 매장만이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은 재고하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故 崔鍾賢(50년 農大入)SK그룹회장의 화장실천은 우리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으며, 그에 따라 화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사회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화장유언 서약을 하고, 각 종교단체에서도 화장 장려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LG, SK그룹 같은 대기업에서도 장묘 문화 개선에 뜻을 함께 하고 있어 화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화장만이 자연환경 지켜

최근에 발생한 롯데그룹 회장 부친 유해도굴사건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 파괴가 얼마나 심



각하지를 보여주는 반인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불법호화분묘에 대한 따가운 눈총과 함께 매장위주의 장례관습을 화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다 모셔 무덤 속에서 나무뿌리와 들짐승, 온갖 벌레들로부터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하여 깨끗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가까운 곳에 모셔 자주 찾아 뵙는 정성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정한 효가 아닌가 한다.

화장은 우리의 국토가 더 이상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막고 자연 환경을 지켜나가는 생명운동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 일이다.

다가오는 사이버 현실을 바라보며...

姜美晶(92년 人文大卒)서울산업대 강사

일 마 전에 「메트릭스」라는 영화를 봤다. 새삼 수 백년 전 데카르트가 가졌던 의심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였다. 알게 뭐가? 난 지금 냉동실 안에 누워 있고 나의 생체 에너지는 거대한 메트릭스라는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나의 모든 경험은 가상 현실, 즉 완벽하게 기만된 가짜 경험일런지...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상공간 혹은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해 가는 것을 느끼면서 또 다른 종류의 질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소위 실제공간에서 살고 있는 「나」와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나」중에서 누가 과연 진정한 「나」일까? PC통신으로, 혹은 스타크래프트로 밤새는 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겐 컴퓨터를 매개로 한 경험이 자신의 실제 경험 못지 않게 중요하고 실재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명보다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자신의 정체성을 더 잘 대변해준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많은 경험들과 이미지들이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있다해도 그것들이 나에게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실재가 그러한 공간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 당연하리라.

지금 내가 사이버공간이 실제공간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에 가깝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10대나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을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다.

현란한 이미지 홍수시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요즘 청소년들을 가장 강력하게 잡아끄는 것은 시각적인 것들이다. 가수만 봐도 그렇다. 요즘 가수들은 노래만으로는 승부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현란한 댄스와 수려한 외모없이 팬들의 시선을 끌 수가 없다. 학교 다닐 때 이문세나 신해철을 좋아했던 나로서는 가끔 그들이 못마땅할 때가 있다.

아, 왜 요즘은 노래하는 가수(?)가 씨가 마른거야... 하지만 내가 H.O.T를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신해철과 H.O.T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모두 노래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요즘엔 정말로(!) 노래하지 않는 가수들이 등장했다.

그중 한 예가 「아담」이다. 소위 사이버가수라고 하는 아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낸 假像이다. 이마를 반쯤 가리는 앞머리, 짙은 눈썹, 큼지막하고 선한 눈매, 가쁜 얼굴형... 이런 것이 요즘 10대 소녀들의 취향인가 보다. 시각적인 것에 민감하고 그런 것에 가장 잘 반응하는 세대이기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충분히 열광시킬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사이버가수가 진짜 가수를 대체한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 내가 의문을 갖는 것은 도대체 아담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이다. 가수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우릴 위해 노래 부르고 춤도 취하는데 왜 「무늬만 가수」를 만들어서 상품화시키는가?

아마도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현실 공간의 그것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까닭이리라. 그렇다면 때론 아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컴퓨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서 아주 그럴듯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해도 그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나와는 달리 그저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



이 현재 문화수용의 주체들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진짜나 가짜나 하는 언쟁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신해철」과 「아담」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노라면 내가 어느덧 문화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 한편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세상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가 하는 느낌도 없지는 않다.

내가 아직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나이를 먹지 않아서일까? 변화하는 세상을 보면서 당황스러움이나 착잡함을 느끼기보다는 즐거움 혹은 흥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변화가 부담스럽고 주류 문화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경희의료원 兪明哲교수

무료 의술 펼쳐온 한국의 「슈바이처」

“오지·벽촌 누비며 빛과 소금 역할할 터”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은 이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빛과 소금같은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장애인 무료수술 및 영세민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슈바이처」 兪明哲(67년 醫大卒)동문.

13년간 2만9천건이 넘는 무료진료를 펼쳐온 兪동문은 지금까지 1백여명의 장애인에게 새 삶의 기쁨을 안겨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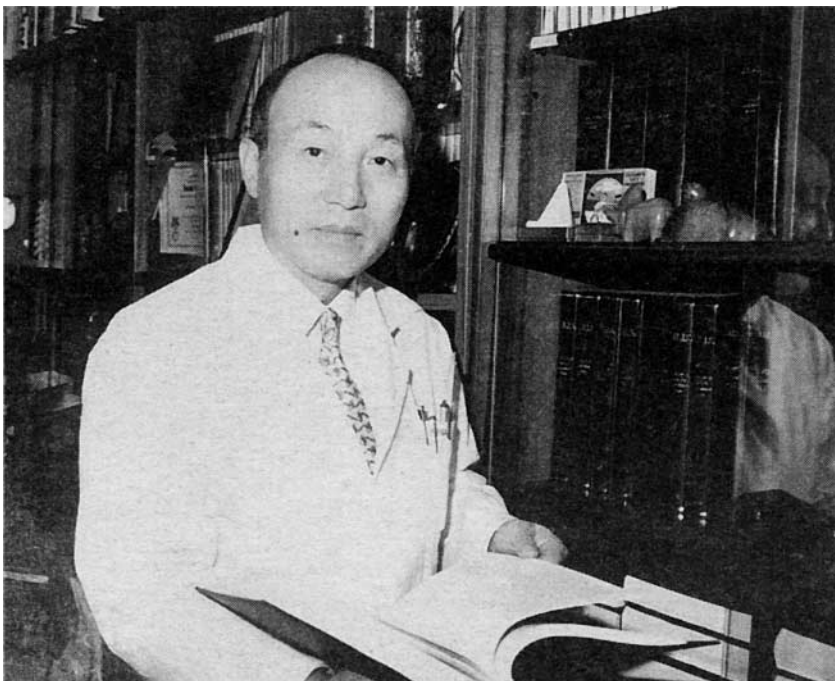
법조인 집안에서 태어난 兪동문이 법과 의학의

사회봉사적 측면에서 고뇌하던 중 법조계의 길을 포기하고, 모교 의대에 진학하게 된 것은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모친의 권유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또한 兪동문이 특별히 정형외과를 선택하여 의료봉사활동에 인연을 맺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불의의 철도사고로 인해 한쪽 손을 잃고 항상 의수를 끼고 생활한 부친을 보면서 성장, 그 안타까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의대 재학시절 여름이면 항상 무의촌 하계진료를 자원, 어렵고 병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곤 했다. 그후 레지던트시절에도 틈만 나면 무료진료 활동을 해왔으며, 그렇게 인술을 펼치는 가운데 새롭게 그에게 다가온 고민이 있었다. 바로 의료장비의 부족과 오지 및 벽촌 등지에서 의료활동을 펼치기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였다.

점차 兪동문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자신이 속한 서울남산로터리클럽 회원들의 협조를 구했



다. 그렇게 해서 지난 1986년 특수검진차가 탄생했다. 이로 인해 兪동문의 진료활동은 질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크게 향상됐다.

한편 특수검진차안에는 X-ray촬영기를 비롯해 관절염진단기 등의 의료장비들을 구비, 명실상부한 움직이는 「소형 정형외과 병원」으로 탈바꿈했다.

특수검진차로 인해 활동범위가 넓어진 兪동문은 북쪽으로는 강원도 고성에서 남쪽으로는 전라남도 고흥 등지까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사랑의 인술을 펼쳐 나갔다.

다발성관절염으로 인해 앓은 채로 평생을 보냈던 한 여인을 네 차례의 수술 끝에 정상인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으며, 고관절이 썩어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20대초반의 남자에게 인공관절수술을 해주어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려 놓기도 했다. 특히 선척적인 기형으로 손을 전혀 펴지 못했던 사람이 그의 수술을 받은 후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일화도 있다.

兪동문은 97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형편이 어려운 연변 조선족을 위한 수술을 행하기도 했으며,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에게 직접 찾아가 무료수술을 행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인술로서 「동포사랑」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다.

兪동문은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남보다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보다 밝아지고 희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6년 국내 최초 재접합수술을 성공시킨 장본인이기도 한 兪동문은 『앞으로 뜻있는 사람들을 더욱 모아 오지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좀더 많은 의료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信)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 702-2233
FAX : 703-0755
E-Mail : snua@netsgo.com



③7 (주)웹콜 시너지

국내 첫 「웹2폰」개발, 세계시장 공략 초읽기

직원 대다수가 동문...차세대 통신업의 주역

(주)웹콜 시너지(WebCall Synergy)는 지난 1997년 8월 모교 전기공학부 창업 동아리 「벤처」 일원이 PC To Phone 개념인 「WebCall」 Demo품을 개발하면서 그 태동이 시작됐다.

이후 1997년 10월 중소기업청 주최 「제1회 전국 대학 벤처 아이템 경진대회」 대상 수상팀인 「퓨처디자인」과 동상 수상팀인 「웹콜」이 협력, 지난 6월 법인체인 (주)웹콜 시너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웹콜 시너지는 그 이전인 98년 6월부터 12월에 걸쳐 「하나로통신 Voice over IP 네트워크 구축 전략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네트워크 컨설팅 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웹콜 시너지에는 朴龍鎬(87년 工大卒)사장을 필두로 마케팅실장인 金泰煒(95년 農生大卒)동문과 모교 공대 4학년에 재학중으로 학업과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장도호기술실장, 양정하, 박성준, 백승준동문 등이 함께 뛰고 있다.

모교 공과대학 건물내에 연구실을, 동

창회관내에 마케팅사무실을 개설한 웹콜 시너지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소호용 WebCal 전자상거래 솔루션인 「Web2Phone」과 현재 개발 마무리에 접어든 기업용 「WebCall Center Solution」, 「Ethernet IP Phone」의 상품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Web2Phone」은 인터넷을 이용, 국제 전화를 시내전화 요금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인터넷이 점차 고속화·저렴화됨에 따라 차세대 통신시장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전용선과 연동된 LAN, Cable modem, ADSL, ISDN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회사 또는 가정에서 「Web2Phone」을 PC에 설치할 경우, 전세계의 인터넷 네트즌이 자신의 사이트에 접속, 전화 LCD를 웹페이지에서 보게 되며, 이때 접속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부서의 단축버튼을 클릭하면 그 즉시 원하는 담당자의 전화기로 실시간 연결할 수 있다. 이 장치의 사용으로 장거리 전화요금은

전혀 들지 않는다.

한편 현재 상품화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 「Ethernet IP Phone」은 기존 아날로그 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전화기로서, 이 전화기를 소유한 모든 사무실간의 국제전화비용은 무료이다. 특히 PC 내장형 카드인 「Web2Phone」의 모든 기능을 PC 독립형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EC(Electronic Commercial)기능을 보강한 EC Phone형태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1년간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金泰煒마케팅실장은 『앞으로 전세계의 모든 전화기를 인터넷전화하는데 도전할 생각이며, 특히 모든 웹사이트에 웹콜 시너지의 제품이 구매되어 같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또한 金실장은 『조만간 웹콜 시너지의 순수자본금을 20억원이상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웹콜 시너지 연락처 : 873-4737)

(信)



朴龍鎬 사장



金泰煒 실장

의과대학

미주지부 학술대회·정총 참석



특별 참석했다.

2백여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상 병리학의 최신지견」, 「방사선학의 발전」, 「질병과 면역학」, 「노인의 정신건강」 등을 주제로 열린 강연과 토론이 펼쳐졌으며, 미술전람회 및 골프대회, 동문가족 장기 자랑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열렸다.

특히 4일 저녁 열린 정기총회에서李회장은『미주동창회 4반세기의 보람찬 역사를 축하하며, 한미 회원간의 유대와 번영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李회장은

그동안 미주동창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李회장은 본국 동창회를 대표해 한미 회원간 우호증진에 기여한 美洲 裴회장과 徐尙憲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좌로부터 李正相학장, 두명 건너 李회장, 한명 건너 裴永燮미주동창회장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 李회장을 비롯 姜信浩명예회장, 朴熙伯·朴嬢實·沈英輔·金鍾信 부회장, 李炳勳총무이사, 모교 李正相학장, 李正彬·柳槿永·韓鎭錫교수, 崔俊奎·沈完燮동문

등 인원 및 회원 13명은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리노이주 인디애나 레이크 리조트에서 개최된 醫大 美洲支部同窓會(회장 裴永燮) 「제16차 하계학술대회 겸 99년도 정기총회」에

행정대학원

장·차관급 승진 동문 축하모임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韓昇洙)는 지난 7월 3일 조선히otel 그랜드볼룸에서 1백70여명의 각계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각을 통해 승진한 동문

10여명의 축하연을 가졌다. 韓회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요즈음 관료제도를 비판하는 소리가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게 한데는

행정 공무원들의 공적적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며 특히 모교출신 선배 공무원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새로 승진한 동문들은 열사봉공의 정신으로 국가에 봉사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韓회장은 林東源통일부 장관, 金光雄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李容根금융감독위 부위원장, 康允模건설교통부 차관, 朴庸玉국방부 차관, 李元雨교육부 차관, 李鍾尹보건복지부 차관, 韓竣皓중소기업청장, 金炳日조달청장

등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또한 金光雄중앙인사위원장이 「새로운 인사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쳐 참석한 동문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경영대학원

취미클럽에 재정 지원하기로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禹德昶)는 지난 7월 6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9년도 제1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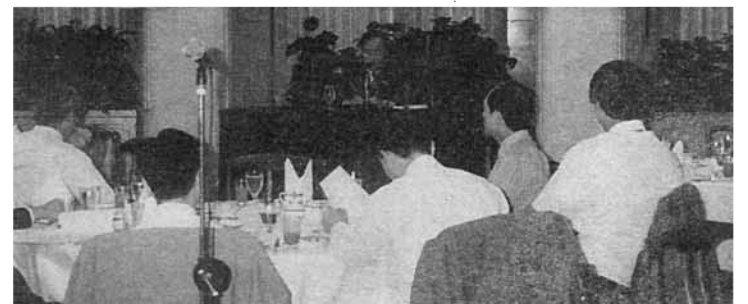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동창회보 여론호 발간과 배포에 관한 안내가 있었으며, 기별부회장과 이사 및 간사를 중심으로한 기별동기회 결성을 7월 16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행사시 同會에서 1인당 1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우수졸업논문 표창, 모교 기념물 설치 등 모교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자리에서 모교 崔鍾泰교수는 「한국노사관계의 격변기와 대응」을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다.

신문대학원

徐廷旭장관 초청세미나 가져



新聞大學院同窓會(회장 李濟薰)는 지난 7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李회장을 비롯해 印輔吉디지털조선 사장, 趙容直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 李正明연합뉴스 논설위원, 姜大仁계명대 교수, 金貳煥아남그룹 부사장, 李民熙KBS문화사업단 사장, 朴紀正동아일보 편집국장, 金學洙서강대 교수, 南善顯KBS영상사업단 이

사 등 각계 동문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 연사로 초청된 徐廷旭(57년 工大卒)과학기술부장관은 「새도전 새천년」을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으며, 특히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 과학기술을 주도하고 대학에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美)

국가정책과정

「북한정세 분석」 주제로 강연 열어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相賢)는 지난 7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林東源(61년 文理大卒)통일부장관 초청, 「남북이산가족 상봉 추진 전망과 북한정세 분석」을 주제로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해교전 및 남북차관금 회담 등 최근의 남북 교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강연이 남북현안을 푸는데 작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朴贊度 前한국영상자료원 감사, 徐廷權일우신박(주) 대표, 崔炳仁(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고문, 崔烈坤 한국미래교육연구회 회장, 全鍾植삼영교역상사 대표, 崔貴男(주)한국케미칼 카치온 대표, 李文鏞경남신문사 국장, 金勇煥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등 70여명의 동문이 자리를 함께 했다.

최고경영자과정

조찬간담회 개최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孫京植)는 지난 6월 29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정기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孫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여름을 맞아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국내 경기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李鎮淳(75년 商大卒)원장을 특별 연사로 초청,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미학과

슬라이드로 50년 역사 선보여



오른쪽에서 두 번째 鄭회장.

미학과동창회(회장 鄭明洙)는 지난 7월 7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鄭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의 만남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며,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주소록과 동문회보를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배포했으며, 「미학과 50년

흘러간 세월」이라는 주제의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다.

이어 가진 행사에서 金容培(추계예술대 교수)동문이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으며, 姜駿赫(문화기획가)동문이 클라리넷을 연주, 참석자들의 열띤 찬사를 받았다.

한편 同會는 지난 5월 29일 60여명의 동문과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진 바 있다.

화학공학과

신임 간사장에 姜信仁동문

화학공학과동창회(회장 沈利澤)는 최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춘계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98·99년 회계연도 주요사업 결과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간사장에 姜信二(혜은화학연구소 부소장)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한 동창회 통합운

영과 동창회장 선출 방식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同會의 명칭으로 「응용화학부 동창회」가 가장 많았으며, 동창회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3기에서 순차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농공학과

「선배의 날」 행사

농공학과동창회(회장 洪承晚)는 최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사

업 지구 현장에서 「제3회 대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새만금 간척 사업 지구 단장인 張正秀동문의 안내로 새만금 전시관 및 새만금 제2공구 현장을 시찰한 일행은 변산반도 소재의 내소사 관광도 함께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白殷基(서울시립대 명예교수), 李揆亨(前단양산업 상무), 朴承駿(前국립식물검역소 격리재배관리소장), 李在起(동암토건 대표), 鄭求賢(경기건설진흥공단 전무), 李尙奎(중앙토건 부사장), 朴承禹·趙成仁(모교 교수)동문 등이 참석했다.

법대 26회

임시총회서 친목다져

법대26동기회(회장 河哲容)는 지난 6월 29일 서초동 소재 「열두대문」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朴錫仁금호건설 상무, 朴忠根변호사, 白文圭의료보험연합회 경기지부장, 梁東信국민은행 경영혁신실장, 李三燮금호타이어 부사장, 李仁濟국민회의 당무위원, 全民基·韓相鎬변호사 등 30여명의 동문이 참석,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분자생물학과

기금위원회 구성키로

분자생물학과동창회(회장 金靑弼)는 지난 6월 19일 거미연구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각 기별 간사를 당연직 이사로 선임키로 했으며, 빠른 시일내에 기금위원회를 구성, 동창회 기금을 마련키로 협의했다.

한편 홈커밍데이 행사를 11월 13일에 개최키로 결의했다.

〈信〉

만평

李元馥



공업화학과

화공과 동창회와의 통합 논의



공업화학과동창회(회장 金石中)는 지난 6월 19일 모교 교수 회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야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2백7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석, 화창한 오후의 정취와 만남의 기쁨을 한껏 만끽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회계 및 감사 보고와 이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며, 同會와 화학공학과동창회와의 통합에 대한 안건 등이 논의됐으며,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한 가족들은 실험실 및 학부 건학의 시간을 가졌다.

건축학과

회원명부 새로 발간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洪性穆)는 최근 학군단운동장에서 제13회 동문체육대회를 열었다.

1백여명의 동문 및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2개조로 팀을 편성, 소프트볼과 족구 등의 다채로운 경기를 펼쳤다.

열띤 경기 속에서도 동문이라는 일체감과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이날 행사는 건축학과

20동기회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同會는 현재 99년도 동창회원 명부를 새롭게 발간, 각 기별 간사를 통해 배포중이다.

독어교육과

바둑·축구 동호 모임

독어교육과동창회(회장 趙永孝)는 최근 서초동 소재 일품기원과 모교 기숙사 운동장에서 「제1회 동호회 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은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바둑과 축구 경기로 실시됐다.

이날 바둑대회에서는 柳明夏(투와이교역 대표)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姜昌求(충남대 교수)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축구경기는 두 팀이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의대 13회

40주년 행사 예정

의대13동기회(회장 姜熙衛)는 오는 9월 8일 오후 6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졸업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2000-7626) (信)

모교소식

신입생 정원 3,660명으로
2002학년도까지 25% 감축

모교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99학년도 4,910명인 신입생 정원을 2002학년도까지 3,660명으로 1,250명(25%)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교의 전체 학부생 규모는 2만명선에서 1만5천명선으로 줄어든다.

한편 학사과정 모집단위를 현재 79개 계열에서 2002년에는 7개 계열 10개 단위로 광역화하고, 무시험전형에 따라 수능성적은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과와 특기,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추가로 교장추천서, 수학계획, 자기소개서와 함께 면접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했다.

수학-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특수분야 우수학생은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수시모집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대학 졸업생의 대학원 입학비율을 현재 30.2%에서 50%까지 늘리고 무시험 선발로 타 대학 졸업생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더불어 학문의 국제적 교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4백56명(어학연수생 2백20명 제외)에서 1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외국교수를 정규 및 계약제로 임용하거나 석좌 및 객원 교수로 초빙하는 등 채용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모교 어린이 병원

장기입원 환자에 교육기회 제공

지난 7월 5일 모교 병원 崔鏞소아진료부원장은 어린이병원 7층에 국내 최초로 어린이병원 학교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백혈병, 뇌종양 등 장기간의 입원 치료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3개 과정의 「병원학교」를 개설, 국어·수학·자연·음악 등의 과목을 가르칠 예정이다. 어린이 병원학교는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교병원

장례식장 새로 갖춰

모교 병원(원장 朴容眩)은 최근 기존의 장례식장을 폐쇄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개장했다.

8백90평 대지에 연면적 1천2백78평의 이 식장은 분향·접객실 13개와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췄다. 한편 12월까지 기존의 장례식장 자리에 2백60대 규모의 주차건물을 세울 계획이다. (장례식장 760-2020)

천문학 탐사팀

「초신성」 발견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 李明均(80년 自然大卒)·朴昌範(83년 自然大卒)교수와 대학원생 3명으로 구성된 탐사팀이 최근 超新星을 관측했다.

국내에서는 조선시대 선조 37년인 1604년 관상감 천문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이래 4백여년 만에 다시 관측된 것이다. 초신성은 별이 진화하다가 내부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 바깥쪽이 폭발하는 현상으로 그 밝기가 한 은하가 내는 빛(태양 밝기의 1백억배)과 맞먹는다고 한다.

제9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후보 추천

서울대인의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매년 개교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분이거나 모교에 장기간 봉직하신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 동문들께서 알맞는 후보인물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말까지 모교 기획실(전화 880-5081, 5086)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화
문진

新刊

■ 백년보다 긴 하루
—崔文僖 著

소설가 崔文僖(본명 崔慶林·58년 師大卒) 동문이 두 번째 창작집을 내놓았다.

목화씨, 진주조개, 치자꽃, 보리 감부기 등 단편 7편을 모은 이 책을 통해 고민이 많은 중산층의 초라한 초상을 다각도로 묘사하고 있다. <프레스21刊·값 8,000원>

■ 기업을 위한 변명
—宋丙洛 著

시장경제 분야의 권위자인 모교 宋丙洛(63년 商大卒) 부총장이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경제해설서를 펴냈다.

이 책을 통해 어떤 기업이 藥이고 어떤 기업이 毒인지, 한국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등 기업에 대한 모든 의문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기업학 특강을 들을 수 있다. <김영사刊·값 7,900원>

■ 아프리카 환상곡
—成百燁 著

초대 경실련 여성위원장을 역임한 成百燁(73년 師大卒·시인) 동문이 검은 대륙을 작가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애정으로 바라본 책을 선보였다.

직접 찍은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풍경사진과 그곳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이 이 책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은혜기획刊·값 6,000원>

■ 제3의 인생
—趙成憲 著

안성군수를 역임한 趙成憲(74년 行大院卒) 동문이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 지원

금을 받아 전국 3대시장의 하나였던 「안성장」의 영화를 되살리

기 위해 노력했던 일과 향토사의 숨은 이야기를 담았다.

더불어 46편의 수필, 20편의 시평을 통해 趙동문의 의지적 삶을 위한 초극의 몸부림을 엿볼 수 있다. <도서출판 해송당刊·값 5,000원>

■ 살빠지는 그림치면
—金榮國 著

신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金榮國(86년 大學院卒·대한최면연구소 고문) 동문이 그림만 봐도

살이 빠진다는 최면의 세계를 소개했다.

최근 TV방송을 통해 최면술을 선보인 金교수의 최면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정신세계사刊·값 9,000원>

公演

■ 이가원 바이올린독주회
—8월 15일 예술의 전당

이가원(94년 音大卒) 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비탈리의 「샤콘느 g단조」를 비롯해 슈만, 이차이 등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한다. <공연문의 : 음악춘추 2233-5901>

■ 소프라노 宋映玉독창회
—8월 28일 예술의 전당

지난 97년 도미, 올해 5월까지 테네시주 밴더빌트대학의 블레어 음악대학에서 수학한 소프라노 宋映玉(84년 音大卒) 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독창회를 갖는다.

이번 독창회에서는 비발디의 「내 믿음의 기쁨으로」, 슈베르트의 「바위 위의 목동」 등을 선보인다.

■ 孔源英 피아노독주회
—8월 29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孔源英(89년 音大卒) 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독주회를 열어 베토벤, 리스트, 스크리아빈, 라벨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음연 516-5141> <變>

동창회관 사무실 임대

지리적 여건과 주변 환경이 좋은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임대평수 : 60평
문의 : 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동문의소리

장애인 위한 대학정책 필요

지난달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컴퓨터 보안 관련 회의에 참가했다. 휴식시간에 네명이 서로 수화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지만 다음시간에 곧 의문이 풀렸다. 그중 두사람은 장애인인 아니고 통역인 이었던 것으로, 강의를 옆에서 열심히 수화로 통역하여 주고 있었던 것이다.

10여년전에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교라는 곳에서 강의하던 때가 생각이 났다.

이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미국에서도 잘되어 있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으로 모

든 학교 시설물에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쓰는데 장애가 있거나 보이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시험시간에는 시간을 2~3배로 배정하여 따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 또한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한 사람씩 수화를 하는 통역인을 동반하여 강의시간에 동시통역을 하도록 하였다. 내가 강의하는 과목에도 한 명이 와서 통역을 하곤 했는데 제대로 알아듣고 통역을 했는지 항상 의심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반면에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교육 여건은 어떠한가? 1급 장애인은 차치하고 가벼운 장애를 가진 자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대학교에서 휠체어를 타고 대부분의 강의실에 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시험시간을 따로 배정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시설과 규정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부터라도 장애인 교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의 일류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과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하겠지만 균형 잡힌 교육, 균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지 않을까? 金晄昊(76년 工大卒)에스큐브 사장

여유있는 삶을 살았으면

『빨리 빨리』, 『바쁘다 바빠』를 연발하며 쉴새없이 움직이는 多動症 환자들. 새 천년을 불과 1백50여일 앞에 두고 있는 20세기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바빠? 도대체 바쁨의 정체는 무엇인가? 왜 우리들은 매사를 빨리 빨리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나?

정글과 같은 조직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인가, 20세기의 환경재앙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환경호르몬의 영향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인가?

여하튼 우리들의 삶의 속도는 과거 10년전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지금 이순간 1분을 줄면 과거 10년전 열흘을 존 것과 같은 속도라고 한다. 이런 바쁨 덕분에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10여일의 생산량이 100년전 연간 총생산량과 같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고되고 힘들어 보인다.

빌게이츠의 최근 저서 「생각의 속도」에서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



보다 더 클 것이다」고 예언하고 있다. 생각의 속도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빨라질지언정 우리들 삶의 속도는 차분히 안정되는 그런 미래였으면 좋겠다. 쉴데없이 허둥대지 않고 진중한 하나 하나의 활동들이 의미있고 창조적인 발전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의 삶이 여유있고 행복해지길 소망해본다. 金善姬(84년 環大院卒)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mail과 snail mail

얼마전 친구에게 줄 선물을 하나 샀다. 그냥 선물만 달랑 보내기가 뭐해서 편지를 쓰기로 생각하여 선물을 부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고, 편지쓰기를 고집하다가 다시 그만쯤의 시간이 지나가 버릴 것 같아서 얼른 선물만 보내버렸다. 편지 한 장 쓰기가 왜 이리 어려워졌는지. 요즘은 친구와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 e-mail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e-mail은 그 편리함과 신속성으

로 인해 재빨리 연락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축하카드, 연달카드 영역도 차지해버렸다. 이 e-mail로 인해 손으로 써서 편지 보내는 일이 더욱 뜸해졌다.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는 편지를 snail mail이라고 한다. snail mail은 e-mail에 비하면 참 수고스럽다. 그래서 이 snail mail로 보내는 카드가 큰 선물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낯익은 필체 위의 수고로움이 정성과 반가움과 그리움을 증폭해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e-mail이든 snail mail이든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주 전하며 지내면 좋으려만,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e-mail마저도 한동안 보내지 못하고 지내게 된다. 이 무심함을 바쁘려니 이해해주길 바라면서 말이다. 오늘은 나의 무심함에 의 사과로 snail mail을 보내야겠다. 金知映(93년 藥大卒)태평양기술연구원 의학연구소 연구원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 99년 4월 24일~6월 28일 · 一般 : 99년 4월 21일~6월 30일〉

상임이사

- ▲尹沃榮 자연대동창회장=20만원
- ▲裴載湜 대학원동창회장=20만원

이사

◇人文大學

- ▲김석태⑥한불종합금융 차장

◇社會科學大學

- ▲이천복⑧하나銀 방화동지점장

◇家政大學

- ▲김명자⑨건강생활과학연구소
- ▲이기영⑩모교 생활과학대학장
- ▲이인자⑨건대 생활문화대학장

◇看護大學

- ▲김복자⑦서울중앙병원 간호부

◇經營大學

- ▲김문수④국회의원
- ▲김선규⑦캐나다 로얄은행

◇工科大學

- ▲강명순⑥한양대 명예교수
- ▲강홍섭③태광중앙연구소 상무
- ▲경상현⑥KAIST 교수
- ▲구광서③대광광업기술조사소
- ▲권기안⑦서영기술단 고문
- ▲김동진⑦현대우주항공 사장
- ▲김보웅⑧前 쌍용자원개발
- ▲김상주⑥모교 명예교수
- ▲김석기④대경기계기술 사장
- ▲김석주④한국썬보(주) 사장
- ▲김영기⑥정우석탄화학 전무
- ▲김영배⑦대흥광업기술조사소
- ▲김용근④스미토모 개발실장
- ▲김창식⑦오공산업(주) 회장
- ▲김충세⑧한국쓰리콤 사장
- ▲문석형⑤
- ▲박민태⑦태광화학공업
- ▲박순자④모교 명예교수
- ▲박영희⑥
- ▲박태원④한국과기원 이사장
- ▲배상호⑧쌍용정유 부사장
- ▲백이호⑦서현건설 대표이사
- ▲손동준⑥동일기연(주) 사장
- ▲안홍문⑥효성 T & C 전무
- ▲오성환③신공항공고속도로 사장
- ▲오승환⑦바이엘코리아(주)
- ▲우인성⑥한국피셔과학 사장
- ▲원종환⑥前 주한 구매계약관
- ▲원준희⑤신우엔지니어링
- ▲윤봉순⑤(주)삼화기업 회장
- ▲윤재건⑥(주)청석엔지니어링
- ▲이광우④롯데 햄·우유 상무
- ▲이대락⑥세미크론(주) 대표
- ▲이덕선⑤
- ▲이병휘④한국과기원 명예교수

- ▲이상호⑦서호전기 대표이사
- ▲이승우④종합건축설계社 사장
- ▲이윤우⑥삼성전자 반도체
- ▲이재건③우인화학(주) 사장
- ▲이준식⑥한국과기원 교수
- ▲이태섭②국회의원
- ▲이희종⑦LG산전(주) 고문
- ▲장세창⑥이천전기공업 회장
- ▲장희익②LG그룹 상무이사
- ▲전경수⑦모교 교수
- ▲전춘생④인하대 명예교수
- ▲정병숙⑤한국생산기술研 사장
- ▲정석규②태성고무화학 사장
- ▲정순창③SK건설 대표이사
- ▲정연철⑦풍국기업 대표이사
- ▲정옥희⑧부곡온천 호수장
- ▲조병철⑤(주)한철상사 대표
- ▲조일제⑥前 영풍산업 부회장
- ▲조형제⑤한화미상사 회장
- ▲지 순③간삼종합건축社 사장
- ▲채호석③협진정밀 회장
- ▲함경호⑥덕천정밀 사장
- ▲허영우②한양대 교수
- ▲현희현③최신물산 회장

◇農科大學

- ▲김강권④ 前 농촌진흥청장
- ▲김광호⑥건국대 교수
- ▲김시경⑥前 진주산업대총장
- ▲박래경⑦前 농촌진흥청
- ▲손두식③경북대 교수
- ▲심재철③한국니퍼맨 고문
- ▲안중운⑦농림부 기획관리실장
- ▲엄기덕④(주)보영양행 대표
- ▲오세인⑤아세아종합기계 전무
- ▲윤학주③한국야쿠르트(주)
- ▲이득룡⑥경기특수산업 사장
- ▲이병하⑥前 농협 연구위원
- ▲이재현⑤경기용인정신병원
- ▲임경순⑤모교 교수
- ▲임승룡⑥배화여고 교장
- ▲최정화⑥모교 교수
- ▲최찬식⑥한국엔지니어링
- ▲한정길⑦한국니퍼맨(주)
- ▲허문희④모교 명예교수
- ▲허종관⑤한국경제종합研 고문

◇文理科大學

- ▲강두식⑤호원대 총장
- ▲강일규⑦前 한국합부금융
- ▲김근수⑦국민銀 남대문지점장
- ▲김상웅④(주)삼양사 회장
- ▲김성열④前 동아일보 상임고문
- ▲김성호⑥도현사 사장
- ▲김시중⑤고려대 명예교수
- ▲김영배⑥중앙일보 사장실장
- ▲김우현⑥前 기아경제연구소
- ▲김중하④국회의원
- ▲박경석⑤前 국회의원
- ▲박만수⑥한국산업리스 사장
- ▲손세일⑤국회의원
- ▲신우식⑦영상자료원 이사장
- ▲신지현⑦前 인천교대 교수
- ▲심상필⑤홍익대 총장
- ▲이계원③SK축구단 단장

- ▲이광찬②원광대 교수
- ▲이기원⑥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남기⑤前 수원대 강사
- ▲이수용⑦세이브그린화원 대표
- ▲이종복⑤심설당 사장
- ▲임석진⑥명지대 교대원장
- ▲임희섭③고려대 대학원장
- ▲정용두⑦바울학회 회장
- ▲조규광④한재 자문위원장
- ▲조성욱⑤前 인하대 총장
- ▲조한웅⑥(주)MAPS 대표

◇美術大學

- ▲강은엽③계원조형예대 부학장
- ▲성기점②숙명여대 강사
- ▲이종복⑥(주)포름디자인 사장
- ▲정창섭①모교 명예교수
- ▲조수도④前 대유공전 교수

◇法科大學

- ▲강성재④국회의원
- ▲강용현⑦법원행정처
- ▲강인현②한양증권 상임고문
- ▲강태중⑥위너스버거 사장
- ▲강홍석④산업은행 금융부장
- ▲고현석⑥국성군수
- ▲권순복⑥지방행정研 이사장
- ▲김관수①국민은행 검사역
- ▲김길영⑤성창기업 부사장
- ▲김나복⑦변호사
- ▲김상섭⑧前 동양생명 전무
- ▲김영채⑥변호사
- ▲김영훈⑥前 한국조세연구원
- ▲김윤옥⑦신용보증기금 부장
- ▲김재기⑦의정부 지청장
- ▲김정후⑥강원대 교수
- ▲김종철⑥(주)쌍방울 상임고문
- ▲김진우⑦변호사
- ▲김창복⑤
- ▲김창홍⑥대구지검 경주지청장
- ▲김학원⑦국회의원
- ▲김현순⑤민주평통 자문위원
- ▲김형선⑥대법원 대법관
- ▲김황식⑦대법원 재판연구관
- ▲나대진⑦대한해운 상무
- ▲목영준⑦청주지법 부장판사
- ▲박 준⑦변호사
- ▲박석인⑦금호건설(주) 상무
- ▲박성근⑥옴투신 부사장
- ▲박영수⑥광주은행장
- ▲박용수⑦부산고법 부장판사
- ▲박원진⑤상주제일도정공장
- ▲박종국⑥동양종합금융 전무
- ▲박효성⑥대한항공 대표이사
- ▲방국성⑦전주지법 부장판사
- ▲백영열⑦변호사
- ▲백운수⑥모교 미학과 강사
- ▲백재봉⑤한사랑교회 담임목사
- ▲변충근⑥소아마비협회 사무장
- ▲변학남⑤前 남우회 사무처장
- ▲서남수⑥대성테크 대표이사
- ▲성주형⑥송의여전 교수
- ▲손광수⑦신한銀 무교지점장
- ▲손종석④前 서울도시철도 사장
- ▲송민호⑤대전대 교수

- ▲송상현③모교 교수
- ▲송종의④前 법제처장
- ▲신 건③국가정보원 제2차장
- ▲신장순⑤前 유정상사 사장
- ▲양 영⑥(주)한진 상무이사
- ▲엄낙용⑦재정경제부 차관
- ▲오유방③변호사
- ▲유명건⑦변호사
- ▲유순석⑦변호사
- ▲유재복⑦변호사
- ▲유재웅⑥유한회사 가산 고문
- ▲윤보옥⑦인하대 교수
- ▲윤진수⑦모교 교수
- ▲이동춘③前 포철 부사장
- ▲이보형⑦안흥상호신용 회장
- ▲이성로⑧상업증권(주) 상무
- ▲이수진②前 대한전기협회
- ▲이순배②청우무역 이사장
- ▲이영오⑦한국銀 포항지점부장
- ▲이재화⑧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해원③前 서울시장
- ▲이희규④前 광주은행 전무
- ▲임규운⑦변호사
- ▲임명순④前 정풍물산 상임감사
- ▲임상순⑦변호사
- ▲장세두③변호사
- ▲정대권⑦한라종합 법무법인
- ▲정문화⑥국회의원
- ▲정옥균②前 범양화학 대표
- ▲정재룡⑥성업공사 사장
- ▲정휘위⑥동림학원 이사장
- ▲재차룡④변호사
- ▲조동원③해외문화교류협회
- ▲조왕하⑦동양종합금융 대표
- ▲조준희⑥변호사
- ▲최대용⑤前 한전정보네트웍
- ▲최춘기⑥단국대 강사
- ▲한진유④영락교회 사무처장
- ▲허홍구⑥경향운수 대표이사
- ▲홍석조⑦서울지검 부장검사
- ▲황경진⑤선계무역(주) 회장
- ▲황길수⑥변호사
- ▲황병인⑤前 공무원연금공단
- ▲황선태⑦사법연수원 부원장
- ▲황종태⑤변호사
- ▲황철수⑥변호사

◇師範大學

- ▲고준식⑤동작교육청 상담위원
- ▲김진규②양서중 교장
- ▲노재민⑥(주)신일축산 대표
- ▲민재익⑥前 고려대 기획처장
- ▲배종무③국회의원
- ▲우세홍⑥서울보건專 교수
- ▲원혜영⑦부천시장
- ▲이광정⑥경원대 교수
- ▲이석조⑤금호레미콘 대표
- ▲정종호④유진종합개발 사장
- ▲조길준⑥서울과학고 교장
- ▲조태경⑤동국대 명예교수
- ▲진명자④동양공전 교수
- ▲홍성오④대성학원 원장

◇商科大學

- ▲강경만⑤前 제일물산 대표

- ▲강문창⑧두산건설(주) 대표
- ▲강보원④한국시멘트 상임감사
- ▲강신종⑥신세계이동통신 대표
- ▲공정곤③前 효성물산 부회장
- ▲권해동③고려월간산업정보
- ▲권희구⑥주은리스 상무
- ▲권희택⑥(주)안동버스 사장
- ▲김규현⑥한일증권 회장
- ▲김봉규②前 한국기업리스 대표
- ▲김부익③부익양행 대표
- ▲김석규⑦한일합부금융 고문
- ▲김시왕③동양투자신탁 감사
- ▲김웅세⑦前 롯데월드 사장
- ▲김정현③前 대신전원 회장
- ▲남 용⑥LG텔레콤 대표
- ▲류종목⑥흥국단철공업 대표
- ▲명동근②명성건설 회장
- ▲민경재③前 광은리스 회장
- ▲민병래⑥前 조흥증권 부사장
- ▲민해영⑥여신전문금융업협회
- ▲박건호③커밍스코리아 고문
- ▲박기종⑦국무총리실 부이사관
- ▲박대평⑤뉴코아파이낸스 대표
- ▲박병렬⑦신영증권 부회장
- ▲박병준⑦강원산업(주) 사장
- ▲배갑순④상도주유소 사장
- ▲배종렬⑥제일기획 대표
- ▲배홍규⑦공인회계사
- ▲변창기③동방산업사 사장
- ▲서 행④가산상사(주) 대표
- ▲성하현③한화국토개발 사장
- ▲손상모⑦전략경영컨설팅 대표
- ▲송국현②前 경남리스 대표
- ▲신복영⑤서울은행장
- ▲신양우④두산개발 상무
- ▲여현동②前 신탁은행 상무
- ▲우용해⑤Y.H.WOO 회장
- ▲유원영③한국전자 명예회장
- ▲유치송③前 민한당 총재
- ▲윤종현④평화문화연구원장
- ▲이건재⑤오정약품 대표이사
- ▲이근희⑥前 한양대 교수
- ▲이길우⑤대한화재보험 고문
- ▲이병국⑤나산그룹 고문
- ▲이은방⑥(주)CTI 대표이사
- ▲이일쇄⑥대우 파키스탄지역
- ▲이종각⑥한국산업리스 사장
- ▲이하룡⑦청와대 공보비서관
- ▲임동승⑥삼성증권 상담역
- ▲임중수⑥롯데물산 상무
- ▲임재주⑤홍익대 초빙교수
- ▲장기팔⑥한일증권 사장
- ▲장덕신⑦대우전자부품 부장
- ▲장종록⑥은성사 기술고문
- ▲전장원⑥前 경남기업 부사장
- ▲조경수④한국슈미트 대표
- ▲지치봉⑥나산그룹 기초실장
- ▲진철평⑥뉴코리아인흥 대표
- ▲최남규④한국오라클 상임고문
- ▲최명걸⑥삼신울스테이트생명
- ▲최운열⑦서강대 교수
- ▲최태규⑤(주)케이비씨 대표
- ▲홍성인⑥前 대창공업 부사장
- ▲홍성철④황해도민회 고문
- ▲홍승후③대양전기공업 회장

◇獸醫科大學

▲김조웅⁶⁷고려동물약품 사장
▲나기식⁶⁸동선산업 대표
▲정원공⁶⁷삼우금속공업 대표
▲최찬영⁷³신진동물병원 대표

◇藥學大學

▲김원보⁶⁷평안약국 약사
▲김장호⁶⁹세심약국 약사
▲김한길⁶³제생당약국 약사
▲서한익⁶⁶초당약품 전무
▲송희성⁶⁴송약국 약사
▲신국현⁶²모교 천연물과학
▲엄용진⁷²대호약국 약사
▲유용근⁶⁸한국그락스 전무
▲이가평⁶⁴수정약국 약사
▲이종지⁶⁷아마노우치 소장
▲하만화⁶⁶한진약국 약사
▲한규홍⁶⁸동아제약 상무
▲허 상⁶²불광약국 약사

◇音樂大學

▲이경숙⁶⁵모교 명예교수

◇醫科大學

▲강형룡⁴⁸강내과의원장
▲기의식⁴⁸기의원장
▲김건렬⁴⁹단국대 병원장
▲김영균⁴⁹동아제약 상임고문
▲김영덕⁶⁶원효로의원장
▲김인원⁷⁸모교 교수
▲김중호⁶⁶강남성모병원 실장
▲문명상⁶⁷강남성모병원 과장
▲박동건⁷⁷신경정신과의원장
▲박문갑⁶³백애의원장
▲박신근⁶⁸구세산부인과원장
▲박원제⁶⁶소아과의원장
▲박정범⁶⁹산부인과의원장
▲방영주⁷⁹모교 교수
▲백만기⁴⁷모교 명예교수
▲송영명⁷³소아과의원장
▲송영철⁶⁹소아과의원장
▲심완섭⁷⁰제일안과의원장
▲우원형⁶⁶우산부인과원장
▲유인상⁶³전주병원 이사장
▲유형래⁶⁰성야병원장
▲이경지⁶³성일산부인과원장
▲이근식⁶⁴내과의원장
▲이명덕⁷³강남성모병원 소아과
▲이명욱⁷¹화해진단방사선과
▲이부영⁶⁹한국.웅 연구원장
▲이상문⁷¹소아과의원장
▲이순형⁶²모교 교수
▲이영호⁴⁵이비인후과원장
▲이용진⁶⁰자산의원장
▲이정상⁶⁶모교 의대학장
▲전순영⁷¹정형외과원장
▲정규병⁷¹고대안암병원 과장
▲주근원⁴³한국배상의학회장
▲주정화⁶⁶고대안암병원 신경과
▲지삼봉⁶¹대해의원장
▲진용한⁷⁷서울중앙병원 안과
▲최세준⁶⁹최소아과의원장
▲최진수⁷⁰내과의원장
▲추연명⁷⁹해화진단방사선과
▲한병재⁶⁴한외과의원

◇齒科大學

▲강성현⁷⁵강성현 치과 원장
▲권태국⁶²권태국 치과 원장
▲김 일⁶⁵김일 치과 원장
▲김경원⁷⁶경원 치과 원장
▲김기호⁶¹김기호 치과 원장
▲김상숙⁷⁷김치과 원장

▲김상욱⁷³김상욱 치과 원장
▲김성래⁶⁷동산 치과 원장
▲김성룡⁶⁴김성룡 치과 원장
▲김세진⁷³김세진 치과 원장
▲김여미⁸⁰성복 치과 원장
▲김지호⁶⁵예일 치과 원장
▲백순지⁶⁶백순지 치과 원장
▲변석두⁶⁷변치과 원장
▲우형식⁶⁵우치과 원장
▲유광길⁶⁹유광길 치과 원장
▲유병도⁶⁰유병도 치과 원장
▲윤학영⁶⁸윤학영 치과 원장
▲이동악⁷⁴이동악 치과 원장
▲이수구⁷²이치과 원장
▲이용오⁶⁰제일 치과 원장
▲이형규⁶¹이형규 치과 원장
▲임장섭⁶⁸임치과 원장
▲장계순⁷³장치과 원장
▲장영정⁶⁶장영정 치과 원장
▲정현주⁶¹전남대 교수
▲하상완⁷⁰신흥 치과 원장
▲현기용⁶³소하 치과 원장

◇經營大學院

▲김광득⁷⁰해운항만청 차장
▲우덕창⁶⁹前 쌍용그룹 부회장
▲이경훈⁶⁸대우 무역부문 사장
▲이광수⁷⁷한국와이퍼 대표
▲이상선⁶⁸(주)경방 감사

◇保健大學院

▲박희서⁷⁹한의원장
▲여현태⁶⁷새강의원장
▲윤용길⁷⁰삼아상사(주) 대표
▲이철욱⁷⁴길병원 의료원장
▲전금자⁷⁴前대한간협 사무총장
▲조경중⁷⁰소비자연맹 부산시회

◇司法大學院

▲김영준⁷⁰국회의원
▲이기영⁶⁹변호사
▲정경식⁶⁵헌법재판소 재판관

◇行政大學院

▲김영화⁷⁰특허법률사무소장
▲박범채⁶⁶고합물산 상임감사
▲이효계⁶⁸전남대 객원교수
▲전주식⁶⁴국가안보회의 연구원
▲주병덕⁷⁹前 충북도지사
▲최규학⁶⁵국가보훈처장

◇環境大學院

▲박형석⁷⁴前 우보ENG 부회장

일 반

◇人文大學

▲강고흥⁸³ ▲고인숙⁹² ▲곽재성⁸² ▲권오걸⁹²
▲김대환⁶⁵ ▲김원중⁶⁹ ▲김인배⁷² ▲김자원⁹⁷
▲김재열⁷⁷ ▲김종명⁷⁶ ▲김종하⁸⁹ ▲김학태⁷⁸
▲문안나⁸⁶ ▲박동춘⁷⁷ ▲박영규⁹⁰ ▲배영수⁷⁶
▲손진욱⁸⁹ ▲송기국⁹⁰ ▲심강수⁷⁷ ▲심양섭⁸⁷
▲안범진⁹⁰ ▲엄성연⁹³ ▲오대석⁹⁰ ▲윤종민⁸³
▲이명훈⁸³ ▲이상규⁹⁸ ▲이상훈⁹⁰ ▲이훈규⁷⁹
▲장대철⁸⁸ ▲전인한⁸⁷ ▲정병일⁷⁸ ▲정영란⁷⁷
▲조미선⁹⁴ ▲조순용⁷⁹ ▲최남재⁸⁰ ▲최영욱⁷⁷
▲허성식⁸⁸ ▲허석범⁷⁶ ▲홍기선⁸⁰ ▲홍선근⁹²
▲홍영호⁷⁹

◇社會科學大學

▲강영철⁸⁰ ▲강종표⁸³ ▲공선욱⁸⁰ ▲구본성⁸⁹
▲김관중⁸⁸ ▲김관호⁸⁵ ▲김광수⁹¹ ▲김만현⁷⁶
▲김명언⁷⁷ ▲김병수⁸⁷ ▲김선태⁹⁰ ▲김성영⁸³
▲김소용⁸³ ▲김용창⁸⁶ ▲김용하⁹¹ ▲김은조⁸⁶

▲김이환⁷⁶ ▲김정기⁷⁷ ▲김정환⁹⁴ ▲김종민⁸⁷
▲김준영⁸⁹ ▲김준일⁷⁹ ▲김철수⁸¹ ▲김현수⁸⁶
▲김현욱⁸⁹ ▲김현준⁸⁰ ▲남승우⁹⁰ ▲도경수⁷⁸
▲문상현⁹² ▲문영태⁹² ▲문형진⁹⁴ ▲박성호⁸⁷
▲박수홍⁸⁹ ▲박영훈⁸² ▲박재영⁸² ▲박재하⁸¹
▲박정호⁸⁷ ▲박혜준⁸² ▲박호성⁸² ▲송명달⁸⁰
▲왕운중⁸⁵ ▲우현진⁹⁴ ▲윤기현⁷⁷ ▲이대성⁸⁵
▲이선우⁸⁵ ▲이성호⁸² ▲이영욱⁸³ ▲이재영⁷⁸
▲이정호⁸⁷ ▲이호석⁸⁴ ▲이흥구⁷⁹ ▲이흥엽⁸⁵
▲전진웅⁹⁴ ▲정낙형⁷⁹ ▲정하석⁸⁹ ▲조영준⁸⁹
▲조진완⁸⁵ ▲지영수⁸⁵ ▲최순길⁸⁸ ▲최정규⁸⁹
▲최형두⁸⁸ ▲홍성진⁹¹ ▲황영수⁸¹

◇自然科學大學

▲강현모⁸⁹ ▲강희정⁸⁴ ▲김병수⁷⁸ ▲김재우⁷⁸
▲김진익⁸⁸ ▲김홍운⁸⁰ ▲박남규⁸⁷ ▲박종근⁷⁷
▲신현철⁸⁴ ▲양원호⁸⁰ ▲유영민⁸⁸ ▲유재준⁸⁴
▲이승복⁸⁷ ▲이재용⁸⁶ ▲임규호⁷⁷ ▲장경우⁸²
▲장종민⁷⁶ ▲전태식⁷⁹ ▲최익구⁹⁴ ▲최진혁⁷⁸
▲한동욱⁹⁴

◇家政大學

▲강영자⁶⁵ ▲경희호⁸⁴ ▲권영은⁷⁵ ▲김미정⁸⁸
▲김성은⁸⁷ ▲김수향⁷² ▲김지희⁸⁷ ▲김효순⁸²
▲성미영⁸² ▲성현경⁷² ▲엄은경⁸² ▲원명심⁷⁹
▲이미자⁸⁵ ▲이승선⁷³ ▲이승림⁸⁰ ▲이신영⁸²
▲이영은⁷⁹ ▲이화숙⁷¹ ▲정성혜⁸² ▲정수혜⁸³
▲정은희⁷⁶ ▲최영혜⁷⁵ ▲최윤정⁸⁸ ▲최창숙⁷²
▲홍성아⁸⁸ ▲홍윤정⁸⁸

◇看護大學

▲김경덕⁷⁹ ▲김기자⁸⁹ ▲김기희⁸⁶ ▲김명자⁸⁹
▲김영옥⁷⁹ ▲남혜경⁸⁰ ▲박은선⁸⁷ ▲오은경⁸²
▲윤선경⁷³ ▲이은주⁸⁷ ▲임난영⁷¹ ▲정명자⁸⁰
▲조결자⁸⁶ ▲하양숙⁷¹ ▲홍성은⁸⁰

◇經營大學

▲고석진⁸² ▲구성민⁹¹ ▲국기호⁸³ ▲권용기⁷⁹
▲김기웅⁸⁸ ▲김보오⁸² ▲김은호⁸² ▲김종문⁸⁶
▲김종환⁸⁸ ▲김종훈⁸² ▲김진성⁸⁹ ▲김홍식⁹⁴
▲김희철⁷⁹ ▲문영국⁸⁶ ▲박기상⁹⁰ ▲박주원⁷⁷
▲박호환⁸¹ ▲서준원⁸⁰ ▲서태환⁷⁷ ▲성락현⁸¹
▲소현정⁹¹ ▲손대영⁸¹ ▲오정구⁷⁹ ▲우승엽⁸⁷
▲우정엽⁸⁵ ▲원재연⁸⁰ ▲우승권⁹¹ ▲유인식⁸⁶
▲유제화⁸⁵ ▲이기성⁸² ▲이영진⁸⁰ ▲이용석⁸⁵
▲이유재⁸² ▲이준근⁹⁰ ▲이철재⁸⁰ ▲전귀학⁸⁸
▲정성원⁸⁸ ▲조창현⁸³ ▲조태현⁷⁹ ▲최원국⁸⁰
▲하형석⁹³ ▲한상민⁹⁴ ▲홍창수⁸¹

◇工科大學

▲강무치⁷¹ ▲강석호⁶¹ ▲강희동⁷¹ ▲고동일⁹⁷
▲고윤석⁸⁸ ▲고인석⁶⁴ ▲고형석⁸⁹ ▲공대근⁶⁵
▲곽신용⁸⁷ ▲구길신⁸⁷ ▲구재광⁸⁷ ▲구창용⁸⁴
▲권기훈⁸⁹ ▲권옥현⁸⁶ ▲권혁주⁸³ ▲기원강⁷⁵
▲갈병규⁴² ▲김 룬⁵⁵ ▲김 순⁷⁰ ▲김 용⁸⁸
▲김 원⁸⁵ ▲김경수⁷⁷ ▲김경희⁷³ ▲김광재⁶⁷
▲김광현⁷⁵ ▲김규남⁹¹ ▲김규석⁹⁴ ▲김규수⁵⁰
▲김규홍⁹⁵ ▲김기세⁸⁰ ▲김기품⁸⁵ ▲김기환⁸³
▲김남준⁸⁹ ▲김대식⁸² ▲김동진⁸⁹ ▲김동명⁷³
▲김동식⁹¹ ▲김동주⁷³ ▲김동필⁹⁴ ▲김만기⁸⁶
▲김만호⁸³ ▲김무연⁸⁶ ▲김문환⁸⁶ ▲김범준⁸⁵
▲김범진⁸³ ▲김상규⁷² ▲김상기⁸⁴ ▲김상필⁸⁴
▲김선구⁷⁸ ▲김선정⁸⁶ ▲김성곤⁹⁴ ▲김성대⁸⁸
▲김성보⁸⁸ ▲김성우⁸³ ▲김성호⁷⁷ ▲김수남⁸³
▲김수환⁷³ ▲김순일⁷¹ ▲김신용⁸¹ ▲김영호⁸⁵
▲김옥규⁸⁸ ▲김용국⁸⁶ ▲김용익⁸⁴ ▲김용철⁸²
▲김용태⁶⁷ ▲김용환⁸² ▲김원식⁸⁰ ▲김윤희⁸¹
▲김응진⁸⁹ ▲김응수⁸⁷ ▲김익수⁸⁶ ▲김인선⁸⁹
▲김일석⁷⁵ ▲김임수⁸⁷ ▲김자영⁷⁸ ▲김재곤⁷⁷
▲김재범⁷⁸ ▲김재욱⁸¹ ▲김재중⁸³ ▲김재창⁸⁹
▲김정규⁸⁶ ▲김정선⁷⁴ ▲김종식⁸⁴ ▲김종훈⁷³
▲김주봉⁴⁷ ▲김주철⁹⁰ ▲김종원⁸⁴ ▲김진배⁷²
▲김진오⁸¹ ▲김진환⁸⁴ ▲김철빈⁷¹ ▲김춘식⁸¹
▲김충국⁸⁴ ▲김충기⁸⁶ ▲김태정⁷³ ▲김태중⁸⁰
▲김풍오⁷² ▲김한석⁸² ▲김현욱⁷⁵ ▲김형모⁸⁸

▲김홍근⁸⁰ ▲김희중⁷¹ ▲김희제⁶⁶ ▲김희준⁸⁰
▲남기환⁸⁴ ▲남창훈⁸² ▲남택중⁶⁶ ▲노승택⁸⁶
▲노형민⁷⁷ ▲도정섭⁷⁷ ▲류세열⁹⁰ ▲류중식⁸¹
▲류홍희⁸⁰ ▲문영기⁷³ ▲문제길⁶⁵ ▲문형근⁷⁷
▲민병찬⁶¹ ▲민승기⁸⁰ ▲박규원⁷³ ▲박두화⁸⁵
▲박명식⁷³ ▲박병용⁸² ▲박봉규⁷¹ ▲박봉훈⁸¹
▲박상도⁸⁴ ▲박상표⁸⁵ ▲박석호⁸⁵ ▲박신규⁸⁸
▲박용찬⁸³ ▲박용택⁷⁹ ▲박유준⁸⁵ ▲박의중⁸⁶
▲박지훈⁸⁵ ▲박하영⁷⁹ ▲박홍규⁸¹ ▲박희재⁸³
▲배동환⁷³ ▲배원근⁸⁵ ▲배정희⁸³ ▲배태식⁸⁶
▲백계근⁷⁷ ▲백인섭⁸⁶ ▲백창욱⁹³ ▲백옥석⁸⁶
▲변형직⁸¹ ▲부창열⁸¹ ▲서강주⁷¹ ▲서동욱⁷³
▲서봉수⁸⁵ ▲서석철⁸⁰ ▲서진호⁸⁹ ▲설순지⁹³
▲설재훈⁷⁸ ▲성영철⁸⁹ ▲성원용⁹⁰ ▲성준용⁷¹
▲손병기⁷⁶ ▲손혜환⁸⁹ ▲송경석⁸² ▲송기석⁸²
▲송길호⁷⁴ ▲송병래⁸¹ ▲송병록⁸³ ▲송병택⁸⁰
▲송진익⁸⁹ ▲송창준⁸¹ ▲신동신⁸³ ▲신원기⁷⁰
▲신원용⁸⁵ ▲신형균⁸⁰ ▲신호철⁸⁹ ▲심수병⁷⁷
▲심우갑⁸⁸ ▲심인섭⁷⁵ ▲심형주⁸⁵ ▲안덕주⁸¹
▲안동남⁸³ ▲안상준⁷² ▲안영룡⁸⁶ ▲안재복⁸¹
▲안정준⁸⁴ ▲안지명⁸⁵ ▲양배덕⁸¹ ▲양성석⁸⁰
▲양승철⁸⁴ ▲양용규⁸⁶ ▲양원호⁸¹ ▲여영남⁸⁹
▲엄익준⁷³ ▲엄태우⁸⁷ ▲여민중⁸⁶ ▲오상호⁸⁵
▲오신남⁸⁴ ▲오열근⁸⁴ ▲오재화⁸⁰ ▲오치재⁷⁴
▲오태식⁸⁴ ▲옥승영⁸⁰ ▲옥영석⁸² ▲우상복⁸⁹
▲원형재⁷⁵ ▲유기봉⁷⁸ ▲유남열⁸⁵ ▲유삼덕⁸⁶
▲유익신⁸³ ▲유정근⁸⁷ ▲유재준⁸⁴ ▲유환규⁸⁶
▲육내승⁸¹ ▲윤병양⁸⁰ ▲윤신박⁸⁵ ▲윤영식⁸⁶
▲윤용석⁸¹ ▲윤준철⁸⁰ ▲이 항⁸⁷ ▲이건형⁸⁴
▲이경돈⁸⁰ ▲이경운⁸¹ ▲이경환⁷⁰ ▲이광우⁷⁷
▲이광진⁷³ ▲이규재⁷⁷ ▲이규재⁷¹ ▲이근모⁷⁹
▲이남일⁷⁶ ▲이대영⁸⁷ ▲이동찬⁸³ ▲이상욱⁸⁸
▲이상원⁸⁶ ▲이상철⁸¹ ▲이상우⁸⁵ ▲이수원⁸¹
▲이수홍⁸⁷ ▲이승우⁸⁰ ▲이승일⁸⁶ ▲이영근⁷⁶
▲이영희⁸⁷ ▲이오연⁸⁷ ▲이용성⁸² ▲이용식⁷²
▲이용일⁹⁰ ▲이원도⁸⁵ ▲이원성⁸⁰ ▲이인수⁷⁹
▲이임택⁸⁶ ▲이재성⁸⁴ ▲이재창⁸⁷ ▲이재형⁷¹
▲이정열⁸³ ▲이정욱⁸⁷ ▲이정우⁸⁵ ▲이종민⁸⁶
▲이종열⁸⁹ ▲이종우⁸⁴ ▲이준산⁷¹ ▲이중현⁸⁸
▲이창주⁸⁰ ▲이철원⁷⁰ ▲이철형⁸⁴ ▲이철훈⁸³
▲이탁용⁸¹ ▲이한진⁷⁷ ▲이호일⁷² ▲이흥배⁸¹
▲임규원⁸⁶ ▲임길진⁸² ▲임무신⁷⁴ ▲임성렬⁸³
▲임주일⁸³ ▲장석열⁸⁹ ▲장성욱⁸⁰ ▲장영원⁷⁰
▲전주홍⁸⁸ ▲전창산⁸⁴ ▲장구필⁸⁰ ▲정동화⁷⁹
▲정산용⁷³ ▲정세영⁸⁰ ▲정세학⁸¹ ▲정양숙⁸²
▲정연근⁸⁰ ▲정영균⁸⁵ ▲정용태⁸³ ▲정원영⁸⁶
▲정인수⁷⁷ ▲정인식⁷⁸ ▲정재구⁸⁶ ▲정찬영⁸⁵
▲정충기⁸³ ▲정태신⁸² ▲정태영⁷⁵ ▲정필영⁸⁰
▲조관식⁸² ▲조남익⁸⁰ ▲조남일⁷⁴ ▲조백현⁸⁹
▲조병덕⁸⁷ ▲조병학⁸¹ ▲조영선⁷⁵ ▲조외래⁷³
▲조원대⁸⁷ ▲조정수⁸¹ ▲조정현⁸⁴ ▲조춘식⁷⁵
▲조태훈⁸¹ ▲주상훈⁸⁰ ▲주성민⁸⁶ ▲주월동⁸⁴
▲진종원⁷³ ▲천유식⁸⁶ ▲최경락⁷⁴ ▲최규복⁸¹
▲최기연⁷⁸ ▲최달우⁷⁵ ▲최동욱⁸² ▲최상기⁷⁸
▲최상길⁸⁵ ▲최성배⁸⁰ ▲최성일⁸⁶ ▲최승철⁷⁰
▲최영섭⁸⁵ ▲최은석⁸⁷ ▲최재복⁸² ▲최재욱⁸⁶
▲최정근⁸⁶ ▲최정근⁸⁶ ▲최준근⁸⁴ ▲최태희⁸⁸
▲최해천⁸⁵ ▲태두호⁸³ ▲하용진⁸² ▲한도성⁸²
▲한준환⁷⁴ ▲한형희⁸⁰ ▲한태근⁸⁰ ▲허영진⁸³
▲허영철⁷⁴ ▲허영호⁷⁵ ▲홍성인⁷¹ ▲홍성표⁷¹
▲홍성훈⁸⁵ ▲홍영하⁸⁷ ▲홍용균⁸⁶ ▲홍의석⁸⁷
▲황계문⁷¹ ▲황덕규⁸⁴ ▲황보한⁸⁰ ▲황운광⁷⁸
▲황정하⁷⁶ ▲황준석⁸³ ▲황희규⁷⁰

◇農科大學

▲강명길⁶⁷ ▲강문주⁴⁸ ▲강원봉⁸³ ▲강정일⁸⁸
▲강태홍⁸⁵ ▲계정성⁷¹ ▲고동희⁷⁰ ▲고상현⁸⁹
▲고재운⁸² ▲공효상⁸⁶ ▲곽소수⁸⁶ ▲곽중심⁸⁹
▲권순국⁸⁴ ▲김 철⁸⁵ ▲김갑근⁷² ▲김갑성⁴⁷
▲김관진⁷³ ▲김규식⁷⁵ ▲김남식⁸⁹ ▲김내현⁸⁷
▲김대우⁸⁹ ▲김병운⁸⁰ ▲김성지⁸⁷ ▲김영진⁸⁶
▲김용구⁸¹ ▲김용구⁸¹ ▲김의철⁷⁶ ▲김종률⁷⁶
▲김종무⁸⁶ ▲김태순⁸⁵ ▲김현성⁷⁸ ▲김후근⁸⁹
▲류기락⁸⁸ ▲박경제⁷⁷ ▲박금식⁷⁴ ▲박기수⁷⁸
▲박승룡⁸⁹ ▲박용봉⁸⁴ ▲박장렬⁸⁷ ▲박재현⁸⁷

▲박종국⁸³ ▲박철용⁸⁵ ▲박치석⁷¹ ▲박태식⁸⁰
▲박홍목⁸⁶ ▲박희규⁸⁰ ▲배기환⁴⁸ ▲백운하⁸⁷
▲백유현⁸⁰ ▲변종관⁸⁰ ▲성명제⁷² ▲손세호⁸⁷
▲손현수⁸³ ▲손환규⁸⁰ ▲송계원⁸⁰ ▲송기언⁸⁰
▲송창섭⁸¹ ▲신동수⁸¹ ▲신상혁⁸² ▲신언곤⁸⁸
▲신윤중⁸⁰ ▲심상현⁴⁹ ▲심의규⁸⁵ ▲안재숙⁸³
▲오갈현⁸⁰ ▲오승환⁸¹ ▲오현우⁸⁶ ▲우건석⁸⁵
▲우병국⁸⁰ ▲원창언⁸⁶ ▲유병세⁸⁵ ▲유석린⁸⁴
▲유선준⁸⁴ ▲유원석⁸⁶ ▲유호섭⁸⁰ ▲윤병일⁸⁰
▲윤성원⁷⁶ ▲윤여두⁷¹ ▲윤정원⁸⁹ ▲이계형⁷⁸
▲이덕선⁷⁷ ▲이돈구⁸⁶ ▲이미순⁸⁰ ▲이병현⁸⁶
▲이상인⁸⁷ ▲이석주⁸⁵ ▲이성호⁷⁵ ▲이수홍⁸⁸
▲이영배⁸⁵ ▲이영훈⁷⁹ ▲이인호⁸⁷ ▲이정훈⁸⁹
▲이장희⁸⁹ ▲이종민⁸⁰ ▲이창근⁸⁴ ▲이창복⁸³
▲이현국⁸⁶ ▲이형구⁸⁸ ▲이희영⁷⁹ ▲이흥구⁸⁸
▲임용재⁷¹ ▲장운통⁸⁵ ▲정경진⁸¹ ▲정규용⁸⁹
▲정민환⁷⁰ ▲정병현⁸⁶ ▲정병봉⁷⁵ ▲정용화⁸⁰
▲정우원⁸³ ▲정용규⁸⁶ ▲정원용⁸³ ▲제정주⁷⁶
▲조규열⁸⁶ ▲조규태⁷⁸ ▲조병찬⁷³ ▲조수경⁷⁶
▲조수형⁸³ ▲조억수⁸⁰ ▲조창호⁸⁶ ▲조종수⁷⁰
▲채수근⁸⁸ ▲천정하⁸³ ▲최도일⁷⁹ ▲최동열⁸⁵
▲최연호⁷⁸ ▲최영규⁸⁶ ▲최유용⁸⁶ ▲최태동⁷⁵
▲하인환⁸⁵ ▲한상욱⁸¹ ▲한태우⁸⁴ ▲현정오⁷⁰
▲홍순억⁸⁴ ▲황용진⁸¹ ▲황철갑⁸¹

◇文理科大學

▲강병원⁸⁶ ▲

▲추명희⁴ ▲한혜경⁷ ▲함인화³ ▲현용순²
▲홍승숙¹

◇法科大學

▲강구태⁴ ▲강형중⁹ ▲강형춘⁶ ▲고대은²
▲고병철⁴ ▲고의영¹ ▲고창현⁸ ▲곽영욱²
▲권영길⁷ ▲갈병위² ▲김 숙¹⁶ ▲김 훈⁸
▲김건삼⁶ ▲김경중⁷ ▲김국진⁶ ▲김기경⁹
▲김기봉⁶ ▲김기수¹ ▲김덕원⁶ ▲김동익⁷
▲김병문⁶ ▲김병국⁷ ▲김병직⁶ ▲김성철¹⁰
▲김성훈⁶ ▲김수철⁷ ▲김영배⁶ ▲김영식⁷
▲김용표⁶ ▲김용환⁷ ▲김일천⁶ ▲김주옥⁷
▲김준교⁷ ▲김준철¹ ▲김중성⁶ ▲김진태⁷
▲김진표⁷ ▲김찬식² ▲김철지⁶ ▲김태훈²
▲김한수⁹ ▲김형태⁹ ▲남기룡⁶ ▲남기주⁷
▲노용우⁴ ▲노장기⁶ ▲노장우⁴ ▲노태호⁷
▲문창성² ▲민병천¹ ▲민영문⁷ ▲박기태⁸
▲박노문⁷ ▲박승민⁶ ▲박영준⁷ ▲박용일⁴
▲박준모⁸ ▲박창현⁷ ▲박창훈² ▲박효상⁶
▲배달순⁷ ▲백대현³ ▲변득수⁷ ▲서태운⁴
▲손석주⁵ ▲신동원⁷ ▲신안호⁷ ▲심영수⁴
▲안기영³ ▲안덕구⁶ ▲안응선² ▲염용철¹⁰
▲오강근⁶ ▲오승진⁷ ▲오시열⁸ ▲오지철⁷
▲원희룡⁹ ▲유달선⁶ ▲유만익³ ▲유병욱⁸
▲유영춘³ ▲유준형⁶ ▲유철화³ ▲유해돈¹
▲윤영철⁷ ▲이경호³ ▲이기영⁶ ▲이대영⁵
▲이동규⁷ ▲이민재⁷ ▲이상중⁷ ▲이성준⁶
▲이세중⁷ ▲이영관⁶ ▲이원재⁵ ▲이재덕⁶
▲이재현⁷ ▲이태운² ▲이하우² ▲이흥규²
▲임부섭⁵ ▲임승균⁷ ▲임중두⁸ ▲정명봉²
▲정준철⁷ ▲장진훈⁴ ▲전영석³ ▲정기승⁷
▲정지근⁴ ▲정태기⁶ ▲조대원⁷ ▲조석래⁵
▲조용상⁶ ▲조종현⁶ ▲조화연⁶ ▲조후중⁷
▲차동천⁶ ▲차중호⁷ ▲차현국⁴ ▲천성관¹⁰
▲최병구⁷ ▲최재형⁷ ▲최종립⁶ ▲최준희⁹
▲한용기² ▲홍세철⁴ ▲황선익²

◇師範大學

▲강길선⁷ ▲강병용⁶ ▲강성주⁷ ▲강승식⁴
▲강수길³ ▲권유상⁵ ▲김경하⁴ ▲김광숙⁹
▲김규호⁶ ▲김기우¹⁰ ▲김노중⁶ ▲김동현³
▲김두용⁵ ▲김명자⁴ ▲김병수⁴ ▲김삼순¹⁰
▲김상원⁹ ▲김선주⁸ ▲김성태⁷ ▲김순동⁶

▲김영숙⁵ ▲김영일⁷ ▲김용석⁵ ▲김인규⁶
▲김인숙¹ ▲김재식³ ▲김재홍⁷ ▲김정식⁶
▲김종석⁶ ▲김중해⁷ ▲김준말⁵ ▲김창순⁴
▲김창환² ▲김태갑⁵ ▲김학수⁷ ▲김한결⁹
▲김현희⁷ ▲김현미⁶ ▲김현진⁵ ▲김형구⁶
▲남호법⁶ ▲노병룡⁶ ▲노영석⁷ ▲민혜식⁵
▲박 재⁴ ▲박규홍⁷ ▲박노빈⁶ ▲박상배⁵
▲박수일⁶ ▲박승철⁶ ▲박양수⁵ ▲박재희⁷
▲박정남⁷ ▲박정모⁷ ▲박지원⁴ ▲박찬욱⁷
▲백승권⁷ ▲박문택⁶ ▲변재익⁶ ▲서 혁⁸
▲서건희⁴ ▲서순중² ▲서정성⁷ ▲성기현⁷
▲손상남⁶ ▲손종국⁹ ▲송남순⁶ ▲송동수⁷
▲송두현⁶ ▲송혜자¹ ▲신 훈⁷ ▲신복환¹
▲신부철¹ ▲신영애³ ▲신정옥⁶ ▲신정인⁹
▲심낙기⁵ ▲안은신⁵ ▲안정순⁴ ▲안정화³
▲양국성² ▲예원혜⁶ ▲오기세¹⁰ ▲오명숙⁴
▲오성중⁷ ▲오순문² ▲우근룡⁶ ▲유상주²
▲유시락¹ ▲유영숙² ▲유정규⁴ ▲유창형⁷
▲유환옥² ▲유희인⁶ ▲윤덕성⁴ ▲윤병욱⁷
▲윤석원⁷ ▲윤영애⁷ ▲윤익모⁶ ▲윤종박⁴
▲이 중⁶ ▲이강섭⁷ ▲이경우⁴ ▲이계운⁵
▲이광복⁷ ▲이기영² ▲이길오⁷ ▲이덕수⁶
▲이매기¹ ▲이병준³ ▲이산석² ▲이상용⁷
▲이서복³ ▲이석천⁶ ▲이성범² ▲이성진⁵
▲이세현⁶ ▲이양지¹⁰ ▲이영주⁴ ▲이원강¹
▲이재관⁷ ▲이재근⁴ ▲이정희¹ ▲이종연⁷
▲이종진⁷ ▲이주환⁷ ▲이진석¹ ▲이진환³
▲이창구¹ ▲이태준³ ▲이한규⁷ ▲이형근⁴
▲이희천⁷ ▲임억규⁷ ▲임찬희² ▲임창구⁷
▲임창주⁶ ▲장근화⁷ ▲장효원⁴ ▲전규동²
▲정광수⁷ ▲정광현⁷ ▲정부길⁴ ▲정선영⁷
▲정성수¹ ▲정영수⁸ ▲정의포⁷ ▲정종률⁶
▲정준섭⁶ ▲정태규⁷ ▲재욱래³ ▲조양제⁷
▲조대주⁷ ▲지충성¹ ▲진영일⁶ ▲최근무⁵
▲최기숙⁹ ▲최상호¹ ▲최양자⁶ ▲최정민⁵
▲최정현⁶ ▲최재호⁷ ▲추암석² ▲허정준¹⁰
▲허현준² ▲한 병³ ▲한정식³ ▲한철우⁷
▲허현도⁶ ▲현순영⁴ ▲홍경모⁵ ▲홍순자¹
▲황상익⁶ ▲황옥연⁶

◇商科大學

▲강남규⁵ ▲강두순⁴ ▲공광우⁵ ▲구태서³
▲권민식⁶ ▲권현두⁶ ▲김 옥⁶ ▲김 택⁶

▲김경철⁹ ▲김대식⁷ ▲김동식⁶ ▲김동여⁹
▲김동휘⁴ ▲김범수¹ ▲김병기⁷ ▲김석환⁶
▲김영무² ▲김영하⁶ ▲김원수⁷ ▲김용술²
▲김윤걸⁷ ▲김재권⁶ ▲김재진⁴ ▲김재진²
▲김정호⁷ ▲김정환⁶ ▲김종민⁹ ▲김종해⁵
▲김치락² ▲김홍렬³ ▲노준진⁷ ▲문무상³
▲문운룡⁶ ▲민형동⁵ ▲박경수⁴ ▲박동진⁶
▲박상호⁶ ▲박순태² ▲박순화⁶ ▲박영도⁴
▲박태일⁶ ▲박해철⁶ ▲박홍서³ ▲배경한⁷
▲배준섭⁶ ▲배진규⁷ ▲서병민⁷ ▲서정욱⁶
▲설 유⁷ ▲손경수¹⁰ ▲손성철⁹ ▲송규현⁶
▲송문섭² ▲송인기⁷ ▲신문철⁵ ▲신병호⁷
▲신정용⁶ ▲신중우² ▲심병구³ ▲심재운⁷
▲양재욱⁷ ▲엄수명⁷ ▲우상섭⁷ ▲우영하³
▲우영호³ ▲우관상⁷ ▲윤상규¹ ▲은희철⁴
▲이강순³ ▲이경모⁵ ▲이관규⁶ ▲이관규⁶
▲이런기⁶ ▲이만용⁵ ▲이병구¹ ▲이병세²
▲이상훈⁶ ▲이영상⁵ ▲이재현⁶ ▲이준근⁶
▲이중희² ▲이찬구¹ ▲이태호² ▲이한희³
▲이흥근⁷ ▲이희준³ ▲임지순² ▲임창무⁷
▲장기남⁶ ▲장현수⁶ ▲전용현³ ▲전유상⁵
▲전재송⁷ ▲정영원⁹ ▲정기현⁷ ▲정영덕³
▲정용팔² ▲정희경⁶ ▲지상진⁷ ▲채서일⁷
▲채수한⁶ ▲최동호⁷ ▲최성호⁷ ▲최재혁³
▲최진택⁶ ▲하 철⁶ ▲한재석⁶ ▲한희영³
▲합기창³ ▲허재원¹⁰ ▲현호경¹ ▲홍성웅²

◇獸醫科大學

▲강석주⁵ ▲강운형⁷ ▲강종국⁸ ▲강환구¹⁰
▲고주영⁶ ▲구용희⁵ ▲권순호⁷ ▲권혁무⁶
▲강남호⁴ ▲강대중⁶ ▲김덕원⁴ ▲김승환²
▲김영주² ▲김영진³ ▲김재하⁵ ▲김종태²
▲김주성³ ▲김진명⁶ ▲김진영⁴ ▲김창호⁷
▲김협수⁸ ▲나병무⁴ ▲명상돈⁷ ▲명수남⁵
▲목선규⁷ ▲문종복⁶ ▲박승도⁷ ▲박유순⁶
▲박희국⁴ ▲신문균⁶ ▲신상태⁴ ▲신영균⁹
▲신운교² ▲윤석정⁷ ▲윤화영³ ▲이강현¹
▲이강훈⁴ ▲이병욱⁵ ▲이승용⁷ ▲이영원³
▲이은승⁷ ▲이필수⁵ ▲임옥빈⁶ ▲정진화⁵
▲최병일⁵ ▲최영식⁶ ▲최훈희⁷ ▲홍성민⁷
▲홍순국⁹

◇藥學大學

▲강낙희² ▲공영주⁸ ▲권영현³ ▲권현욱⁶
▲김광일⁴ ▲김근숙⁷ ▲김근환⁶ ▲김석기³
▲김성래⁷ ▲김승덕³ ▲김승두⁵ ▲김옥선³
▲김용희³ ▲김정우⁴ ▲김재기⁷ ▲김재백⁵
▲김정희¹ ▲김종철³ ▲나도선¹ ▲나래연⁷
▲나종현⁶ ▲노일협⁴ ▲도 원⁸ ▲문창기⁵
▲박승무⁷ ▲박윤호² ▲박종련⁴ ▲배운도¹
▲손인자⁷ ▲신복영⁷ ▲신정균⁵ ▲우재안¹
▲윤 운⁷ ▲윤국식⁶ ▲윤의섭³ ▲이병성⁷
▲이연택⁷ ▲이원재⁷ ▲이주완⁵ ▲이준환⁴
▲이해돈⁷ ▲이해빈³ ▲임용원⁵ ▲임이균⁶
▲전하창⁷ ▲정용호⁷ ▲정인명³ ▲정춘희³
▲정철영² ▲조남주⁷ ▲조운욱⁸ ▲주갑순²
▲최리나⁸ ▲홍순태⁷

◇音樂大學

▲강낙영² ▲강정구⁶ ▲기주희⁶ ▲김소연⁷
▲김옥경¹ ▲김원주⁹ ▲김용길⁴ ▲김은옥⁹
▲김일룡³ ▲김형순² ▲김홍식⁷ ▲남은경⁶
▲노인경⁸ ▲도완녀⁷ ▲목완수⁷ ▲박문숙¹⁰
▲박세경³ ▲박정자⁶ ▲박종서² ▲박희정⁹
▲서타옥⁷ ▲선우영⁷ ▲송주영⁴ ▲신경옥¹
▲육영희⁶ ▲윤기숙⁶ ▲윤명순³ ▲윤미영⁶
▲윤용훈² ▲윤현주⁷ ▲이단렬⁷ ▲이석원⁷
▲이성혜¹ ▲이자경⁵ ▲이재영⁴ ▲이종석⁷
▲이주연⁹ ▲이혜식⁶ ▲장성덕⁴ ▲장영란¹⁰
▲전순희⁷ ▲정설주⁴ ▲정은숙⁷ ▲정은주⁹
▲조학현⁶ ▲피희영³ ▲현경실¹⁰ ▲홍영자³
▲홍지영⁷

◇醫科大學

▲강문수⁴ ▲강영진⁹ ▲강진화⁶ ▲고응린⁵

▲김기락⁷ ▲김동욱⁴ ▲김득구⁵ ▲김병일¹⁰
▲김봉석⁶ ▲김수길⁶ ▲김연수⁸ ▲김용섭⁴
▲김용태⁸ ▲김용태⁸ ▲김원홍⁶ ▲김인구⁷
▲김재중⁸ ▲김진국³ ▲김치환⁷ ▲김호성²
▲김환규⁷ ▲김홍태¹ ▲노경운⁵ ▲노태성¹⁰
▲도문홍¹ ▲명나혜⁸ ▲민병섭¹⁰ ▲박숙현⁵
▲박영일⁵ ▲박은호³ ▲박중수⁷ ▲배진기⁷
▲백성현² ▲손대원¹⁰ ▲손병선⁶ ▲송동근¹
▲송재원¹ ▲신봉하⁵ ▲신영민⁷ ▲심용석⁶
▲안경화⁶ ▲오명돈³ ▲오준희⁵ ▲원세재²
▲원영천¹⁰ ▲윤경선³ ▲윤석주⁷ ▲은길상⁴
▲이관희² ▲이규택³ ▲이민성⁷ ▲이병권⁷
▲이상국³ ▲이상준⁶ ▲이상진⁶ ▲이재식⁸
▲이정수¹⁰ ▲이혜영⁷ ▲장진호⁵ ▲장청순¹⁰
▲전규식¹⁰ ▲정경태⁸ ▲정운섭⁶ ▲정태신⁹
▲정필현² ▲조병득⁷ ▲조승현⁹ ▲주순오³
▲차인준⁷ ▲차창일⁷ ▲최기은³ ▲최복식⁴
▲최영호⁸ ▲최진숙⁴ ▲하규섭⁶ ▲한두호⁸
▲한희수⁴ ▲홍기석⁷

◇齒科大學

▲강봉기⁷ ▲강운모⁶ ▲고성희⁷ ▲공만석⁷
▲김 무⁶ ▲김광환⁷ ▲김만석⁶ ▲김명철⁶
▲김민수¹⁰ ▲김상운⁷ ▲김석균⁷ ▲김성곤²
▲김수남⁶ ▲김연만⁵ ▲김영균⁵ ▲김영환⁷
▲김용진¹⁰ ▲김우철⁵ ▲김원식⁶ ▲김유진⁸
▲김정수⁸ ▲김정태⁴ ▲김진수¹ ▲김진수⁸
▲김진용⁷ ▲김현순¹⁰ ▲김홍석⁶ ▲노희서⁴
▲박기욱⁵ ▲박동관⁶ ▲박동일⁸ ▲박상복⁷
▲박인욱⁶ ▲박종욱⁶ ▲박준범⁸ ▲방효숙¹
▲백유선³ ▲변기정⁷ ▲변호영⁸ ▲손화진⁷
▲송광수⁶ ▲송광열¹ ▲송학선⁷ ▲신광희⁶
▲신덕재⁷ ▲양문섭⁴ ▲양수정⁹ ▲오계석⁷
▲오기돈⁷ ▲우상민⁷ ▲윤도철⁷ ▲이광건⁷
▲이교인² ▲이기수⁷ ▲이민영² ▲이상태⁷
▲이상봉⁷ ▲이선국⁶ ▲이의용⁶ ▲이인경⁸
▲이해호⁸ ▲이호영¹⁰ ▲임병서⁵ ▲임병채⁸
▲임성수⁶ ▲임형우¹ ▲장도훈⁷ ▲장문성³
▲전해립⁶ ▲정낙현⁵ ▲정명선⁴ ▲정의종⁷
▲정지영² ▲정형태⁶ ▲조달문⁶ ▲진우정⁷
▲차영남⁷ ▲최동광⁶ ▲최동철⁷ ▲최종건¹
▲최진영⁵ ▲최호영² ▲하태성⁷ ▲한 영⁵
▲한보균⁷ ▲함진숙⁶ ▲허민욱² ▲허준구²
▲허준석⁸ ▲홍성익¹ ▲홍지원⁸

◇大學院

▲강병성¹ ▲강성택⁶ ▲강우서⁴ ▲김인배⁶
▲김재균⁷ ▲김택일⁷ ▲문수진⁷ ▲방인태⁴
▲서용창⁴ ▲성기욱¹⁰ ▲송홍현¹⁰ ▲오문우⁶
▲오형재⁷ ▲윤보국⁷ ▲이상연⁵ ▲이상욱⁴
▲이정우⁶ ▲임경순¹ ▲조상희⁷ ▲조순철²
▲조찬성⁵ ▲한태성⁸ ▲홍석일⁹

◇經營大學院

▲김연식² ▲박영희⁶ ▲안중훈⁷ ▲양관후²
▲이승준⁵ ▲이운재²

◇教育大學院

▲박광희⁶ ▲오철진⁷ ▲현덕규⁷

◇保健大學院

▲김영용⁷ ▲김정수¹⁰ ▲박노래¹⁰ ▲박승기⁴
▲신언택¹ ▲이정자⁷ ▲이정지⁷ ▲이희자⁷
▲정순조¹⁰

◇新聞大學院

▲변정민⁷ ▲서강화⁷ ▲이민희⁵ ▲최성봉⁷
▲하정조⁷

◇行政大學院

▲김경엽⁶ ▲김명국⁷ ▲김상진⁷ ▲김순성²
▲김원영⁷ ▲노선호⁶ ▲박완진⁷ ▲여상환⁸
▲임동남⁸ ▲최상선⁶ ▲허범도⁷ ▲허필국⁷

◇環境大學院

▲김경철⁸ ▲김명수⁸ ▲박동천⁸ ▲배우근¹⁰
▲이장수⁷ ▲이준호⁸ ▲정병철⁵ ▲최동일⁸
▲황지현⁷

◇최고경영자과정

▲강광식¹³ ▲강성모⁷ ▲강원재¹ ▲곽진훈¹³
▲구자정²³ ▲권태문²³ ▲김두환¹⁷ ▲김상호³⁹
▲김성수⁴⁷ ▲김영열²⁵ ▲김이환⁴¹ ▲김일기¹⁷
▲김재국²⁵ ▲김재성¹⁹ ▲김정욱⁷ ▲김종찬⁵
▲김종태⁴ ▲김준철⁴ ▲김홍래³⁶ ▲나승렬³³
▲나희수³⁸ ▲문우형⁴³ ▲문재근⁴ ▲박소범²³
▲박영환² ▲박재상⁶ ▲박종관¹² ▲박규현²⁵
▲안종표³⁵ ▲양시백⁴ ▲양희문³⁹ ▲오도영⁷
▲우국일⁸ ▲우근민⁴³ ▲우상우¹⁸ ▲우영태⁴⁰
▲원형연² ▲유춘웅¹ ▲유한섭²³ ▲윤병호⁵
▲이경우⁴³ ▲이광우⁶ ▲이기열¹⁰ ▲이대용⁴²
▲이상복⁴¹ ▲이완근²⁷ ▲이장국⁴² ▲이정일⁴⁴
▲이중수⁴¹ ▲이중학¹³ ▲이중광⁴² ▲이중효²⁷
▲전석근³³ ▲정문원⁷ ▲정병호¹⁷ ▲정병택¹³
▲정의순⁴ ▲조광호²⁴ ▲조대벽¹ ▲조양호²⁹
▲조판제¹⁶ ▲진중배³³ ▲채의승³⁸ ▲최 열²²
▲최인호¹² ▲한재열²² ▲한주석³⁴

◇최고산업전략과정

▲곽문연⁸ ▲권영익¹⁰ ▲김동권¹ ▲김성근¹³
▲김순택⁶ ▲김인규¹⁵ ▲김정원¹⁸ ▲김종열¹⁹
▲김창희¹ ▲김현우⁹ ▲노양근¹³ ▲박우용⁴
▲손인국⁴ ▲신강열⁹ ▲염석훈⁷ ▲오세희²
▲오원근¹⁷ ▲육남선⁶ ▲유춘중¹⁴ ▲이영열⁷
▲이재욱¹⁴ ▲장병우⁷ ▲정우택⁵ ▲조석구⁴
▲최성남¹¹ ▲최순범¹² ▲함돈식¹⁸

◇국가정책과정

▲강광희²⁸ ▲권영배¹⁰ ▲김동천¹⁸ ▲김방임³³
▲김성철²⁹ ▲김성호⁴⁴ ▲김정숙²⁷ ▲김종웅³⁹
▲김진필¹⁷ ▲김철주¹⁰ ▲김홍봉⁴ ▲남중우¹⁰
▲노정기³⁵ ▲림동섭⁹ ▲문상호²³ ▲문영환²¹
▲박성득²⁰ ▲복진태³ ▲서천교⁴⁰ ▲신동민¹¹
▲신의철²⁸ ▲안성혁³ ▲안순길³³ ▲오세득²²
▲오승채⁴⁴ ▲원성희⁴⁰ ▲윤치오⁵ ▲이갑진³⁵
▲이범준³ ▲이상재²⁰ ▲이상철³³ ▲이재복²¹
▲이중성¹¹ ▲이진원²⁹ ▲이청남¹⁷ ▲이태영¹¹